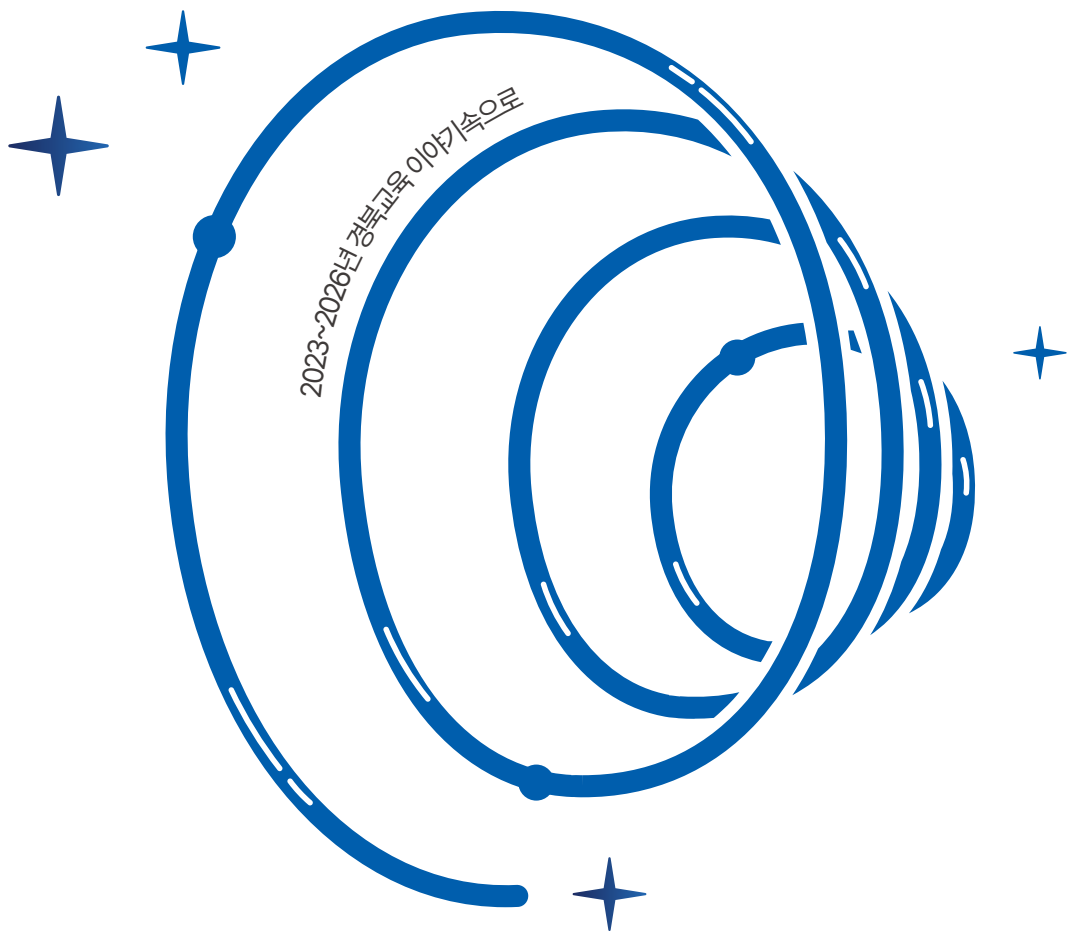


경북교육
4년간의 성장

온앙을
경북교육 WEBZINE

2026년 상반기호

Vol.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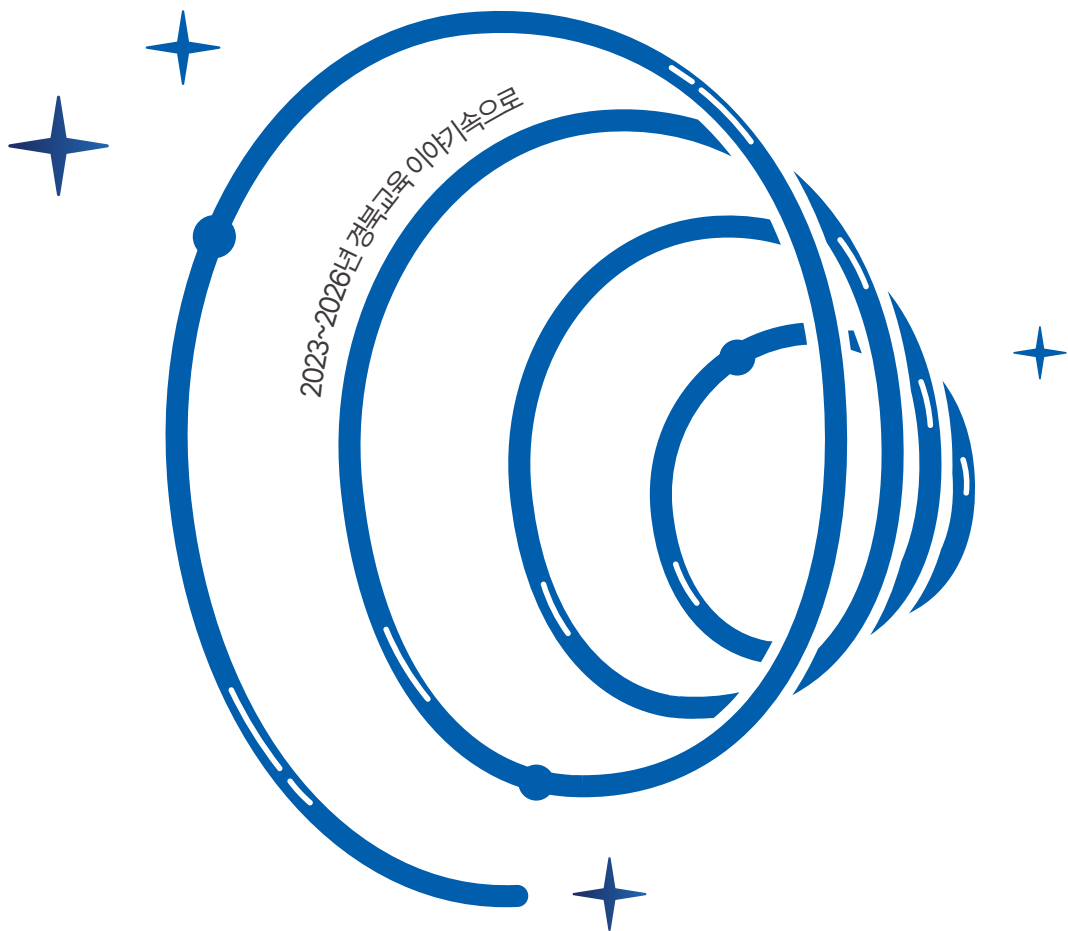
경상북도교육청
Gyeongsangbuk-do Office of Education

경북교육
4년간의 성장

온앙을
경북교육 WEBZINE

2026년 상반기호

Vol.13



경상북도교육청
Gyeongsangbuk-do Office of Education

CONTENTS

PART 1

경북교육 4년간의 기록

06

08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교육,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야 하나
정기효 (경상북도교육청 기획예산관 / 장학관)

PART 2

숫자로 보는 변화

14

16

경북교육, 숫자로 보는 변화
이동욱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 연구원)



경북교육 4년간의 성장

PART 3 사진으로 보는 순간 48

50
2023~2026 주요 활동



PART 4 4년간의 성장 64

66
놀이가 삶이 되는 곳에서
조향희 (포항장량유치원 / 원감)

72
4년의 스케치, 서툰 발걸음의 기록
오가현 (문경여자중학교 / 교사)

76
흔들리며 피어난 꽃이 더 단단하듯:
어느 새내기 주무관의 성장기
김하선 (의성교육지원청 / 주무관)

80
자유야, 공교육이라는 단단한 품 안에서
우리는 매일 도전하고 성장하고 있어
손지영 (운곡초등학교 / 학부모)

86
울릉도에서 보냈던 학창생활을 마무리하는 글
김효진 (원광대학교 한의예과 1학년 / 울릉고 졸업생)



PART

1

경북교육 4년간의 기록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교육,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야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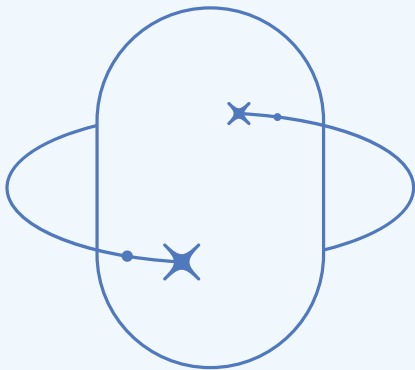
정기호 경상북도교육청 기획예산관 / 장학관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교육,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야 하나

2023~2026

경북미래교육계획의 여정

정기효 경상북도교육청 기획예산관 / 장학관



1 출발선이 된 문구

모든 기획은 하나의 문장에서 시작된다. 2022년 3월, 다시 장학사의 길에 들어섰다. 장학사, 교육연구사를 거쳐 초등학교 세 곳에서 교감으로 5년 6개월을 보내고 다시 교육청으로 여정을 틀었다. 그해 여름, 민선 5기 제18대 임종식 교육감의 따뜻한 경북교육 2기가 열렸다. 2023~2026 경북교육 중기계획은 ‘경북미래교육계획’으로 명명되었고, 나는 경북미래교육기획단의 수석기획위원 역할을 맡았다. 교육감님께서 4년간 다져온 따뜻한 경북교육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비전은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교육’으로 1기에 이어 흔들림 없이 가자고 하였고, 슬로건은 ‘대한민국 표준으로’에서 ‘세계교육 표준으로’로 제안하셨다.

현장의 목소리를 모으고, 전문가 집단의 자문, 기획단의 숙의를 거듭한 끝에, 세 개의 지표가 조용히 자리를 잡았다. 삶의 힘은 모든 구성원 개개인의 성장으로 이어져야 하고, 개개인의 성장은 공동체의 조화 속에서 가치를 찾을 수 있기에, 개인의 성장과 공동체의 조화를 동력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자는 의미를 담아 ‘성장하는 나, 조화로운 우리, 함께 여는 미래’를 지표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그 길로 가기 위한 네 개의 정책방향이 있었다. ‘삶이 있는 교육과정, 힘이 되는 미래교육, 따뜻함을 더하는 학교, 혁신하는 교육지원’이다. 이 넷은 단순한 병렬이 아니었다. 교육과정을 학교의 제일 위에 두고, 미래교육과 교육공동체를 양 날개로 세우며, 그 모두를 교육청이 가장 아래에서 떠받치는 구조였다. 2023~2026 경북미래교육계획은 그렇게 태어났다.

2 감당해야 했던 질문들

‘대한민국 표준’에서 ‘세계교육 표준’으로 한 칸 옮겨 확장한 슬로건이 이렇게 많은 질문을 불러올 줄은 몰랐다. “대한민국 표준은 이미 이루어졌다는 뜻인가?”, “세계교육 다음은 어디인가?”라는 가벼운 물음에서 묵직한 비판으로 이어졌다. “복잡화·탈표준화의 시대에 ‘표준’이라는 말을 내거는 것이 시대착오는 아닌가?”, “표준은 결국 평균의 다른 이름에 그치지 않는가?” 국회의 요청으로 세계교육 표준의 사업 진척을 직접 설명드리러 상경하던 날의 긴장감도 나는 아직 잊지 못한다.

그때 우리는 계속되는 방어에 급급하지 않기 위해 선명한 정의부터 내려야 함을 깨달았다. 웹진 『온방울』 2023년 겨울호 ‘세계 교육 표준을 묻다’에서 교육감님과 특별대담을 통해 그러한 작업을 시도했다. 세계교육 표준이란 글로벌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세계에 내놓을 만한 경쟁력과 질 높은 교육력을 갖추는 일이다. 여기에 국제 나눔에도 소홀하지 않으며, 장기적으로는 해외의 우수한 인재까지 경북으로 불러들이는 일이다. ‘세계교육 표준’이란, 전 세계적인 교육의 본보기를 경북이 창출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표명한 선언이었다.

뒤이어 세계교육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도 ‘경북교육 2024’에서 제시하였다. ‘주도성을 키우는 학습으로 성장을, 융합을 이루는 노력으로 조화를, 새로움을 만드는 창의로 미래를 제일 먼저 새롭게, 보다 높이 이루고, 가장 널리 누리자!’가 그것이었다. 날카로운 비판이 있었기에 우리의 문장도 정교해질 수 있었다. 경북미래교육계획이 겪어야 할 성장통이었다.

3 정책의 문법

계획은 문서로만 남으면 종이에 불과하지만, 실행이 되면 구성원의 삶에 흔적을 남기게 된다. 지난 4년은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교육’이라는 평면적인 문장을 교육정책이라는 입체적인 사업으로 번역해 온 시간이었다.

‘삶의 힘’은 ‘성장’이라는 궤적을 그려야 했다. ‘따뜻함’은 ‘조화’를 이루어야 했다. 전자에는 학생생성교육과정, 질문이 넘치는 교실, 도전! 꿈 성취 인증제, 시울림학교, 체험기관 등이 중심에 섰다. 후자에서는 학교지원센터, 돌봄, 안전, 마음건강, 교권, 이주배경, 특수교육 등으로 촘촘한 그물을 엮었다. 삶의 힘과 따뜻함은 경북교육의 씨줄과 날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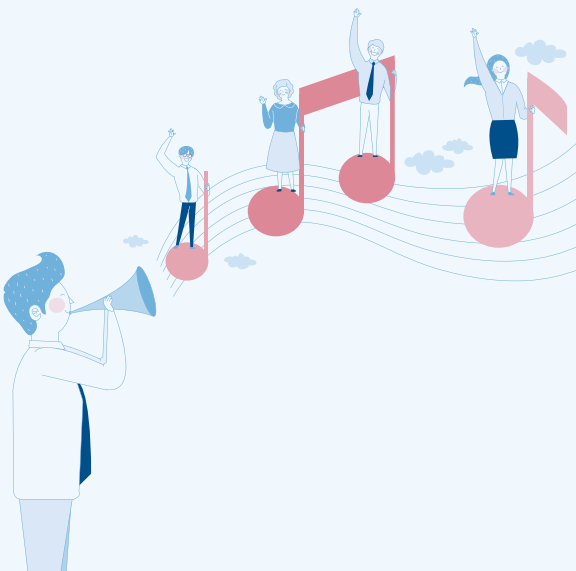
4 4년의 시간에 대한 한줄평

4년의 성과를
한 줄로 요약하라면

주저 없이
‘조화로운 성장’

이라 쓰겠다.

‘삶의 힘’이 ‘다채로운 성장’을
‘따뜻함’이 ‘조화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왔기 때문이다.



4-1. 다채로운 성장의 궤적

경북미래교육계획을 수립하면서 중점을 두었던 부분 중 하나가 교육과정의 강조였다. 지금껏 경북교육에서 교육과정은 영역이 축소되어 있거나 여러 영역으로 분산되어 있었다. 학교의 가장 근간이 교육과정 운영이기에 정책 방향의 첫 번째를 ‘삶이 있는 교육과정’으로 제일 앞에, 단독 영역으로 전면에 내세웠다. 개인적으로 가장 의미 있는 시도였다고 믿고 있다. 그래서인지 가장 내세우고 싶은 성과 역시 교육과정이다. 먼저 경북에서 기획하고 실천한 학생성장교육과정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학교자율시간’ 모델이 되었다. 교육감님이 직접 네이밍한 ‘질문이 넘치는 교실’은 교육부에서 벤치마킹하여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도전! 꿈 성취 인증제’는 대상과 영역을 꾸준히 넓혀 왔고, 작은 학교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시울림학교는 교실에 시의 감각을 불어넣고 있다. 경북의 교육과정은 이제 전국적으로 표준이 되어가고 있다.

자로 드러난 학생들의 성취도 두드러진다. 대표적인 직업교육 분야를 살펴보면, 직업계고 전국 취업률은 2020년 교육부 발표 이후 5년 연속 1위를 지키고 있다. 전국기능경기대회 학생부에서는 2018년부터 8년 연속 우승하며 대통령 표창을 두 번 연속으로 받았다. 해외 우수 유학생은 5개국 8교에 총 140여 명 규모로 자리를 잡았다. 직업계고 학생의 약 20%가 타 시도에서 전입해 온다는 사실도 눈여겨볼 만하다. 이 외에도 과학, 예술, 체육 분야의 성취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체험 인프라는 가히 세계적이다. 수학문화관과 권역별 수학체험센터가 들어섰고, 발명체험교

육관·안전체험관·한국어교육센터·오토캠핑장·메이커교육관이 차례로 문을 열었다. 유아교육진흥원과 미래직업교육관, 융합진로체험관, 인공지능교육센터, 환경교육센터, 교육박물관, 독도교육원도 신·증축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마다 최첨단 도서관이 건립되었고, 발명체험교육관·메이커교육관·인공지능교육관은 발명인공지능교육원이라는 하나의 직속기관으로 통합되었다.

디지털·AI 전환도 경북 고유의 토털 시스템을 갖추어가고 있다. 학습 플랫폼으로 AIEP와 디지털 지식마루, 체험과 교육은 발명인공지능교육원, 업무지원은 인공지능종합자료실과 경북형 워크스 AI, 연구와 개발을 담당할 GBE-AI Lab도 발족하여 명실상부한 종합 체제를 전국 유일하게 완성해 가고 있다.

4-2. 조화로운 공동체의 면면

학교가 본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했다. 교육청 재구조화를 통해 105명의 인력으로 학교지원센터를 전 교육지원청에 설치하여 획기적인 업무경감을 이루어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업무를 훌쩍하게 다 이어트하려는 노력은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되었다. 인공지능 학교지원종합자료실의 누적 이용자는 570만 명을 넘어섰고, 전국 유일의 G-AI Lab의 창립과 ‘AI 비서꾸러미’ 및 온무실.net의 보급은 타 시도의 벤치마킹으로 이어졌다. 최근 시행된 경북형 워크스 AI의 보급과 업무 배송 서비스, 인생 도서관 등도 탄탄한 창의성을 바탕으로 현장의 주목을 끌고 있다.

또한 전 교직원에 대한 노트북 지급과 학급교육과정 운영비, 수업 보듬이 지원도 ‘선생님을 아

이들 곁으로’ 보내기 위한 경북형 업무경감의 특징으로 꼽힌다.

조직문화의 결도 달라졌다. 매주 월요일 간부회의에서 교육감과 국·과장이 함께하는 독서 나눔은 『혁신의 페이지를 넘기다』라는 책으로 3년째 묶여 나오고 있다. 점심시간의 ‘수요수다’는 직원들의 경험과 생각을 엮는 작은 광장이 되었다. 그 결과는 숫자로도 돌아왔다. 대한민국지식대상 장관상을 3회 받았고, 교육부 적극행정 평가에서 9회 연속 수상하며 그중 네 번은 최우수에 올랐다.

한 아이도 놓치지 않겠다는 약속은 촘촘한 정책으로 이어졌다. 수학여행비를 지원하고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했다. 진학지원금을 지급했고, 늘봄학교를 도내 모든 국공사립 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다. 안심 아이 쉼터는 74개교로 늘었다. 산불 피해를 입은 560명의 학생에게 최대 300만 원을 지원했고, 유보통합의 흐름 속에서 영유아 정서·사회·심리 지원을 이어 가고 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치료지원비는 연 4,771명에게 닿았고, 1가정 2자녀 특수교육 가정 407곳에 연 150만 원을 지원한다. 2025년에는 장애 학생 취업지원관 제도를 도입했고, 2022년부터 인공와우 시술비를, 2024년부터 보행재활 로봇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 2024년에는 장애인 예술단 ‘온울림’이, 2025년에는 ‘온그림’이 창단되었다.

2025년 10월에는 APEC 연계 K-EDU EXPO를 개최했다. APEC 교육장관회의의 ‘교육 혁신 컨퍼런스’에도 참여했다. 2025년 기준 국제교류 대상은 19개국 144개교에 이른다. 국제교육

포럼과 세계시민교육 국제포럼을 이어 왔고, 과테말라(2006)와 에티오피아에 교육 정보화를 지원했다. 2024년에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티오피아·몽골에 R컴퓨터를 나누었고, 중국과 일본에는 책꾸러미를 보냈다. 경북교육이 세계에 내놓을 만한 교육력으로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 있고, 국제 나눔에도 소홀하지 않은 ‘세계 교육 표준으로’의 진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5 경주 선언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무대가 경주로 정해졌을 때, 교육이 이 역사적 순간에서 비켜설 수는 없었다. 교육으로 개최국의 국격을 드높이자는 뜻 아래, 교육부와 경북교육청, 전남교육청이 공동으로 K-EDU EXPO를 열었다. 개막식에서 교육감은 세 개의 혁명을 선언했다.

첫째는 가치혁명이다. 배움은 삶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이며, 교육은 현실을 건너는 힘이어야 한다. 아이들은 지금까지 없던 문제와 마주하게 될 것이다. 교과와 일상을 잇는 배움으로 생각하는 힘과 질문하는 용기, 함께 해결하는 역량을 기르겠다는 약속이었다. 오늘의 난제를 다루고 내일의 가능성을 스스로 열어가며, 교육에 새로운 가치를 더하겠다고 했다.

둘째는 기술혁명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기술은 차가운 효율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따뜻한 기술이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이 인간의 존엄과 조화를 이루는 세상에서, 기술은 모두의 기회를 넓히고 현장의 혁신을 뒷받침하는 동력이 되어야 한다. 따뜻한 기술혁명으로 지역과 계층의 격차를 줄이고 배움의 지평을 넓히겠다는 다짐이었다.

셋째는 경계혁명이다. 미래의 문은 경계를 넘어서는 곳에서 열린다. 공간의 경계를 허물어 지역과 세계가 교실이 되게 하고, 영역의 한계를 넘어 인류 보편의 주제를 교육 속에 담으며, 시간의 제약을 극복해 전통과 미래를 잇겠다는 선언이었다.

멈추지 않는 도전과 실험으로 지속가능한 교육을 만들어 가겠다는 방향성이 잘 담겨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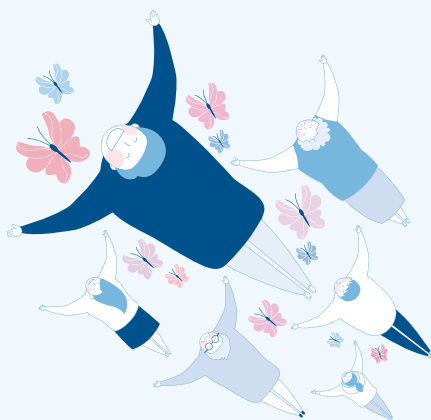
6 이젠 어디로

따뜻한 경북교육 1기는 코로나-19의 시대였다. 사상 최초의 개학 연기가 반복되었고, 온라인 개학이라는 초유의 사태에서 아이들이 없는 침묵의 학교를 ‘온학교’라는 이름으로 되살려낸 그 시간을, 누군가는 ‘경북의 코로나 종식’이라 불렀다. 2기는 코로나의 후유증을 치유하고 4차 산업혁명이 요구하는 역량을 길러 내야 했던 숙제의 시간이었다. 그리고 이제 3기는 AI 시대의 또 다른 전환을 요청받고 있다.

인공지능(AI)이 교육 생태계에 던지는 도전은 기술적 효율성을 넘어 교육의 공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묻는 복합적인 시험지로 진화하고 있다. 교육청은 먼저 AI 활용 능력의 차이가 새로운 계층 분화를 낳는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여, 모든 학생이 평등한 교육 기회를 누리는 보편적 복지를 실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또한, 학생들이 사고 과정을 AI에 외주화하면서 발생하는 비판적 사고력 저하와 평가의 신뢰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결과 중심에서 과정 중심으로 평가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AI 윤리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나아가 데이터 주권 보호와 알고리즘 편향성 감시를 통해 학생들의 가치관이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방어막을 구축해야 한다. 결국 교육청의 대응은 AI를 학습과 혁신의 파트너로 삼아 양극화를 해소하는 도구로 쓰는 동시에, 기술이 미쳐 어루만지지 못하는 교사와 학생 간의 정서적 교감을 지켜내고, 학생의 주체적 사유에 대한 기술의 지배를 철저히 막아내는 데 있다. 이처럼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지원과 인간 중심의 가치 수호가 공존할 때, AI와 경북교육은 아름답게 동행할 것이다.

2023~2026 경북미래교육계획 수석기획위원에서 장학사로, 다시 정책기획담당 장학관으로 이 계획과 함께 걸어왔다. 자리는 바뀌었지만 시선은 한결같았다. 계획은 문서가 아니라 약속이다. 약속은 사람을 향할 때만 지켜진다. 2023~2026 경북미래교육계획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은 수많은 사업이 아니었다. 사람을 바라보는 태도였다고 믿는다.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교육’은 조화로운 성장의 자리까지 왔다. AI 시대에도 사람을 잃지 않는 교육으로 가야 한다. 경주의 가을에서 적었던 문장들을 다시금 읽어야 할 시간이다.





PART

2

숫자로 보는 변화



경북교육 숫자로 보는 변화

이동욱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 연구위원

경북교육, 숫자로 보는 변화

이동욱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 연구위원

I. 줄어드는 학생, 달라지는 학교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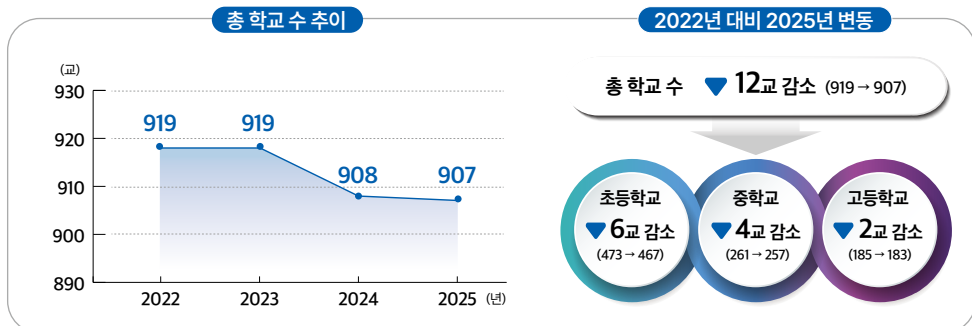
학교 규모의 변화

학교 수 변화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학교 수는 2022년 919교에서 2025년 907교로 줄어들었다. 최근 4년 사이 12개 학교가 감소한 셈이며, 가장 큰 변화는 초등학교에서 나타났다. 초등학교는 473교에서 467교로 감소했고, 중학교와 고등학교 역시 각각 4교, 2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숫자만 보면 단순한 학교 감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여건 변화가 학교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의미에 더 가깝다. 특히 농산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학생 수 감소가 이어지면서 학교 규모와 운영 방식도 함께 변화를 맞고 있다.

다만 학교 수 감소가 곧 교육 축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 경북교육은 작은 학교 공동교육과정과 미래학교, 지역 연계 교육 등 새로운 운영 모델을 확대하며 학생 수 감소 시대에 맞는 교육체계 전환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학교급	2022	2023	2024	2025
초등학교	473교	473교	468교	467교
중학교	261교	261교	257교	257교
고등학교	185교	185교	183교	183교
합계	919교	919교	908교	907교



<자료: 경상북도교육청 교육통계/한국교육개발원 초·중·고 교육기본통계>

학급 수 변화

경북교육의 변화는 학급 수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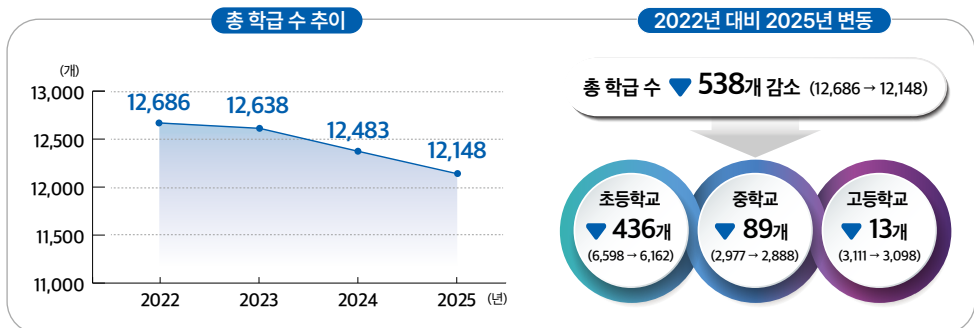
전체 학급 수는 2022년 12,686학급에서 2025년 12,148학급으로 줄어들며 최근 4년 동안 538학급이 감소했다. 학생 수 감소 흐름이 학교 운영 규모에도 점차 반영되고 있는 모습이다.

가장 큰 변화는 초등학교에서 나타났으며, 초등학교 학급 수는 2022년 6,598학급에서 2025년 6,162학급으로 436학급 줄어들었다.

특히 최근 2년 사이 감소 폭이 커지면서 저출생 영향이 초등학교 현장부터 본격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중학교는 감소 폭이 비교적 완만하게 나타나, 2024년에는 일시적으로 학급 수가 소폭 증가하기도 했다. 고등학교는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며, 2022년 3,111학급에서 2025년 3,098학급으로 소폭 감소하는 데 그쳐, 일정 수준 이상의 학급 운영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급 수 변화는 단순한 숫자의 감소를 넘어 교실 운영 방식과 학교 구조가 점차 새로운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학교급	2022	2023	2024	2025
초등학교	6,598	6,558	6,393	6,162
중학교	2,977	2,961	2,971	2,888
고등학교	3,111	3,119	3,119	3,098
합계	12,686	12,638	12,483	12,148



<자료: 경상북도교육청 교육통계/한국교육개발원 초·중·등 교육기본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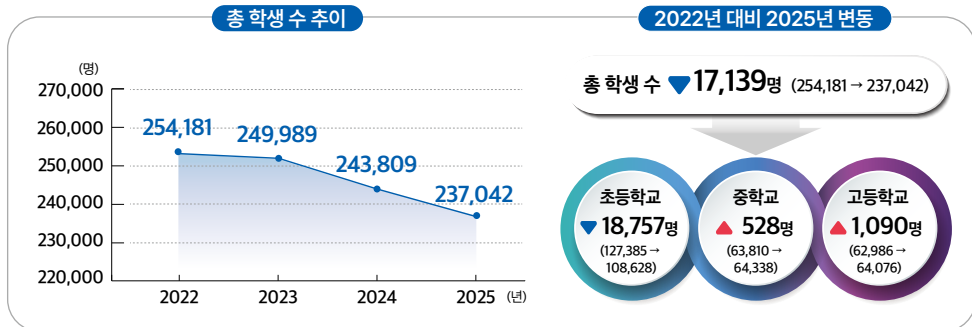
학생 수 변화

최근 경북교육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변화 가운데 하나는 학생 수 감소이다. 전체 학생 수는 2022년 254,181명에서 2025년 237,042명으로 줄어들며 최근 4년 동안 17,139명이 감소했다. 학령인구 감소 흐름이 학교 현장에도 본격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초등학생 수는 2022년 127,385명에서 2025년 108,628명으로 감소하며 최근 4년 사이 18,757명이 줄어들었다. 저출생 영향이 가장 먼저 초등학교 단계에 반영되고 있는 셈이다. 반면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했다. 중학생 수는 2025년 64,338명으로 2022년보다 소폭 증가했으며, 고등학생 수도 64,076명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초등학교 학생 감소가 시차를 두고 중·고등학교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학생 수 감소는 단순한 규모 변화에 그치지 않고, 학교 운영과 학급 편성, 교원 수급, 교육재정, 지역교육 체계까지 함께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변화에 가깝다. 동시에 경북교육은 학생 수 감소 속에서도 학생 맞춤형 교육과 미래형 교육환경 전환을 함께 추진하며 새로운 방향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학교급	2022	2023	2024	2025
초등학교	127,385	124,051	117,023	108,628
중학교	63,810	62,495	62,628	64,338
고등학교	62,986	63,443	64,158	64,076
합계	254,181	249,989	243,809	237,042



<자료: 경상북도교육청 교육통계/한국교육개발원 초·중등 교육기본통계>

교실의 변화와 교육 여건

교원 수 변화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학교 현장의 역할은 오히려 더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교원 수 흐름에서도 함께 나타난다.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교원 수는 2022년 24,749명에서 2025년 24,189명으로 줄어들며 최근 4년 동안 560명이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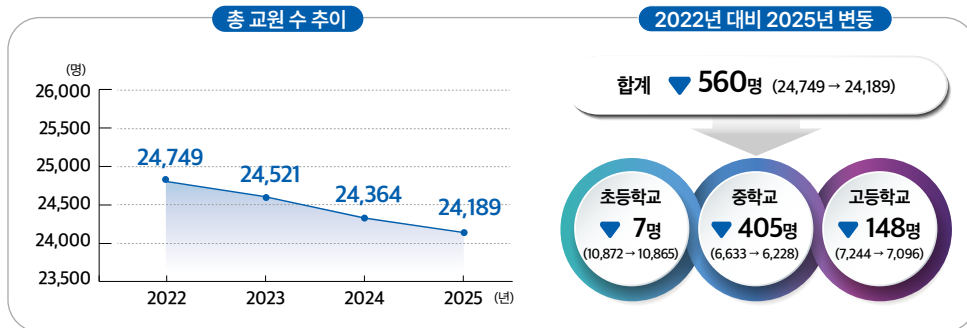
다만 학교급별 흐름에는 다소 차이가 나타났다. 초등학교는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 초등학교 교원 수는 2022년 10,872명에서 2025년 10,865명으로 큰 변화 없이 유지됐으며, 2024년에는 오히려 10,900명까지 늘어나기도 했다.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기초학력 지원과 돌봄, 생활교육, 작은학교 운영 등 학교 현장의 역할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중학교는 감소 흐름이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나, 중학교 교원 수는 2022년 6,633명에서 2025년 6,228명으로 줄어들며 최근 4년 동안 405명이 감소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학급 조정, 학교 규모 변화 등이 교원 배치에도 점차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이다.

고등학교는 완만한 감소 흐름을 보여, 2022년 7,244명에서 2025년 7,096명으로 줄어들었지만 감소 폭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숫자만 보면 교원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 맞춤형 지원과 교육과정 다양화 요구가 함께 커지고 있다. 학생 수 감소 시대에도 교실의 역할은 오히려 더 세밀해지고 있는 셈이다.

학교급	2022	2023	2024	2025
초등학교	10,872명	10,831명	10,900명	10,865명
중학교	6,633명	6,454명	6,313명	6,228명
고등학교	7,244명	7,236명	7,151명	7,096명
합계	24,749명	24,521명	24,364명	24,189명



<자료: 경상북도교육청 교육통계/한국교육개발원 초·중등 교육기본통계>

교원 1인당 학생 수

학생 수 감소는 교실 안 풍경에도 변화를 만들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꾸준히 줄어들면서 학생 개별 지도가 가능한 여건이 점차 확대 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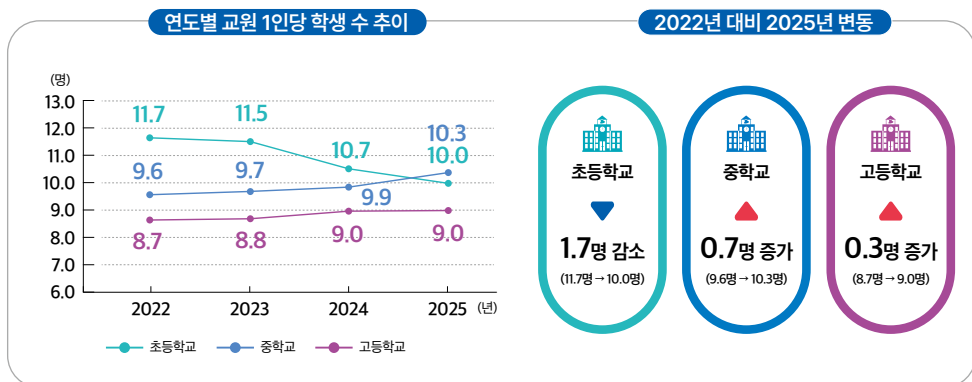
초등학교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2022년 11.7명에서 2025년 10.0명까지 낮아졌다. 최근 들어 감소 폭이 더 커졌는데, 이는 초등학생 수 감소 속도가 교원 감소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 맞춤형 지도와 기초학력 지원, 생활교육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중학교는 다른 흐름을 보여, 중학교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2022년 9.6명에서 2025년 10.3명으로 증가했다. 학생 수 감소보다 교원 감소 폭이 더 크게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다만 전체 수치는 여전히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고등학교는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며, 2022년 8.7명에서 2025년 9.0명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전체 변화 폭은 크지 않았다.

같은 학생 수 감소 속에서도 학교급별 상황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초등학교는 학생 밀도가 낮아지며 개별 지원 여건이 확대되고 있는 반면, 중·고등학교는 교육과정 운영과 교원 배치 사이에서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에 가까워 보인다.

학교급	2022	2023	2024	2025
초등학교	11.7	11.5	10.7	10.0
중학교	9.6	9.7	9.9	10.3
고등학교	8.7	8.8	9.0	9.0



<자료: 경상북도교육청 교육통계/한국교육개발원 초·중·고 교육기본통계>

학급당 학생 수

학생 수 변화는 학급 규모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학급당 학생 수가 꾸준히 줄어들면서 교실 규모 자체가 이전보다 작아지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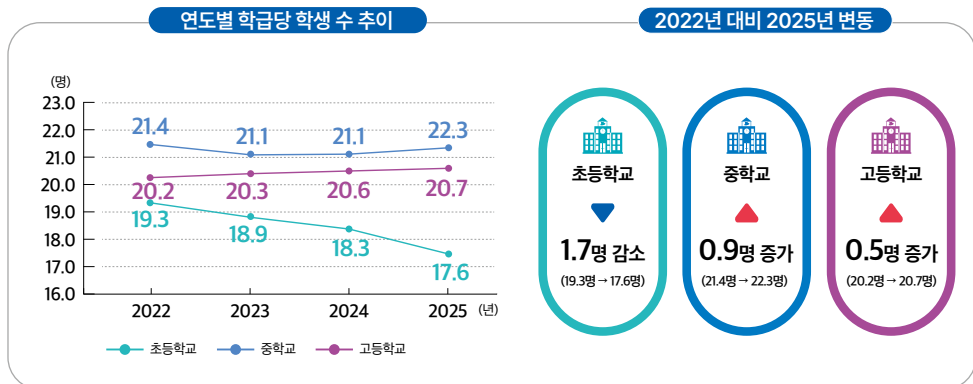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2022년 19.3명에서 2025년 17.6명으로 감소했다. 학생 수 감소 폭이 학급 수 감소보다 더 크게 나타나면서 학급 규모도 함께 축소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학생 맞춤형 지도와 기초학력 지원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변화로 볼 수 있지만, 동시에 작은학교 증가와 학교 운영 효율성 문제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중학교는 상대적으로 변동 폭이 크게 나타나, 2022년 21.4명이던 학급당 학생 수는 2023년과 2024년에는 21.1명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5년에는 22.3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고등학교는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 속에서 소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2022년 20.2명에서 2025년 20.7명으로 완만하게 증가했지만 전체적인 변화 폭은 크지 않았다. 학생 수는 비교적 유지되는 가운데 학급 운영 규모 조정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전체적으로 보면 초등학교는 학급 규모가 점차 작아지고 있는 반면, 중·고등학교는 일정 수준 이상의 학급 규모를 유지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같은 학령인구 감소 속에서도 학교급별로 교실의 모습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셈이다.

학교급	2022	2023	2024	2025
초등학교	19.3	18.9	18.3	17.6
중학교	21.4	21.1	21.1	22.3
고등학교	20.2	20.3	20.6	20.7



<자료: 경상북도교육청 교육통계/한국교육개발원 초·중·고 교육기본통계>

지역의 변화, 교육의 새로운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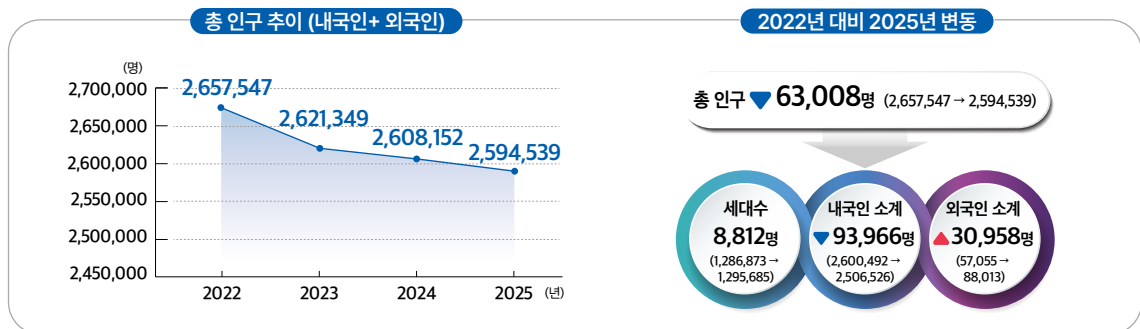
인구 및 세대 변화

경상북도의 인구 구조는 최근 몇 년 사이 뚜렷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전체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세대 수는 오히려 늘어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2022년 265만 7천여 명이던 경북 인구는 2025년 259만 4천여 명으로 줄어들며 최근 4년 동안 6만 3천여 명이 감소했다. 반면 세대 수는 같은 기간 128만 6천 세대에서 129만 5천 세대로 증가했다.

이는 단순한 인구 감소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변화다.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 가족 규모 축소 같은 생활 구조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에 가깝다. 실제로 내국인 인구는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반면 외국인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는 흐름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특히 외국인 인구는 2022년 5만 7천여 명에서 2025년 8만 8천여 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산업 인력 수요와 유학생 증가, 결혼이민자 확대, 지역 정주 인구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보인다. 학교 현장 역시 이러한 지역 변화와 무관하지 않으며, 최근 이주배경학생 증가와 학교 구성 변화가 함께 나타나는 배경에도 지역 인구 구조 변화가 자리하고 있다.

이제 경북교육은 단순히 학생 수 감소에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 변화하는 지역 사회 구조 속에서 새로운 교육 역할을 함께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 들어서고 있다.

연도		2022	2023	2024	2025
세대수		1,286,873	1,282,500	1,291,568	1,295,685
총 계	총계	2,657,547	2,621,349	2,608,152	2,594,539
	남	1,347,878	1,333,750	1,330,385	1,325,498
	여	1,309,669	1,287,599	1,277,767	1,269,041
내 국 인	총계	2,600,492	2,554,324	2,531,384	2,506,526
	남	1,311,881	1,290,298	1,280,547	1,268,493
	여	1,288,611	1,264,026	1,250,837	1,238,033
외 국 인	총계	57,055	67,025	76,768	88,013
	남	35,997	43,452	49,838	57,005
	여	21,058	23,573	26,930	31,008



<자료: 경상북도청 주민등록인구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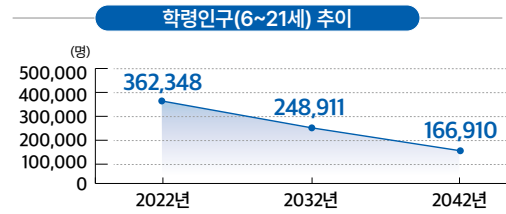
학령인구 추계

경북교육의 미래를 가장 크게 바꾸고 있는 변화 가운데 하나는 학령인구 감소이다. 현재보다 앞으로의 감소 폭이 더 크다는 점에서 지역교육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경북의 학령인구(6~21세)는 2022년 36만 2천여 명에서 2042년 16만 6천여 명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년 사이 절반 이상 줄어드는 셈이다. 특히 초등학교 학령인구는 같은 기간 12만 8천여 명에서 6만 2천여 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가장 큰 변화가 초등교육 단계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지역별 감소 폭도 적지 않다. 칠곡은 학령인구가 약 6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봉화·고령·영덕 등 여러 지역에서도 절반 이상 감소가 예상된다. 포항과 구미 같은 주요 도시 역시 감소 흐름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학생 수 감소가 더 이상 일부 농산어촌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의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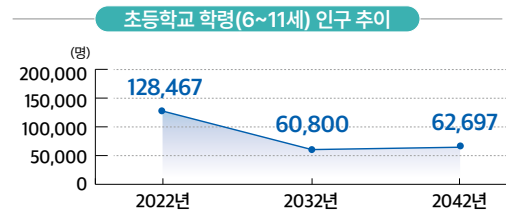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학생 수 감소에 그치지 않으며, 학교 운영과 학급 편성, 교원 수급, 작은학교 유지, 지역 간 교육격차 문제까지 함께 연결되고 있다. 앞으로는 학생 수 감소 속에서도 어떻게 교육의 질을 유지할 것인가가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경북교육이 공동교육과정과 미래학교, 지역 연계 교육, 작은학교 활성화 정책 등을 확대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변화와 맞닿아 있다.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학교의 역할은 오히려 더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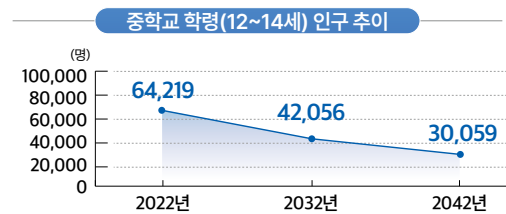
학령인구(6~21세) (명)				
2022년	2032년	2042년	'22년 대비 '42년	
			증감	증감률(%)
362,348	248,911	166,910	-195,438	-5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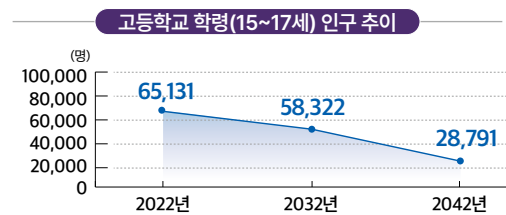
초등학교 학령(6~11세) 인구 (명)				
2022년	2032년	2042년	'22년 대비 '42년	
			증감	증감률(%)
128,467	60,800	62,697	-65,770	-51.2



중학교 학령(12~14세) 인구 (명)				
2022년	2032년	2042년	'22년 대비 '42년	
			증감	증감률(%)
64,219	42,056	30,059	-34,160	-53.2



고등학교 학령(15~17세) 인구 (명)				
2022년	2032년	2042년	'22년 대비 '42년	
			증감	증감률(%)
65,131	58,322	28,791	-36,340	-55.8



<자료: 경상북도교육청 교육통계/한국교육개발원 초·중·고 교육기본통계>

II. 변화하는 학생, 확장되는 교육지원

01

다양해지는 학교 공동체

이주배경 학생 수

경북의 학교 현장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 이주배경 학생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주배경 학생 수는 2022년 11,445명에서 2025년 13,158명으로 늘어나며 최근 4년 동안 1,713명이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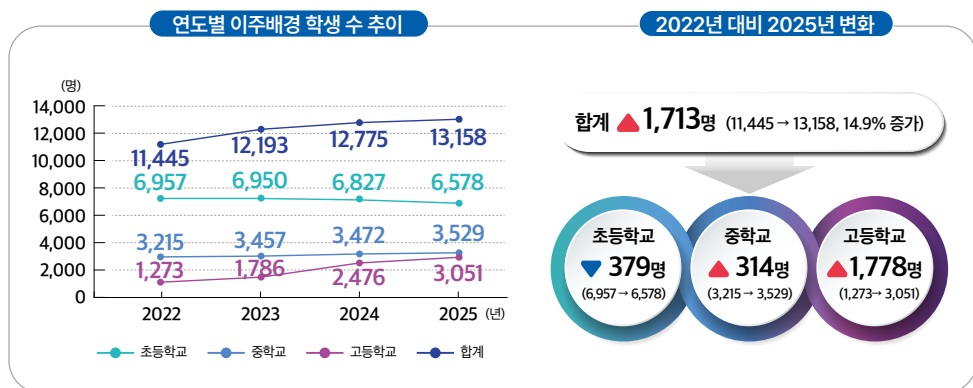
가장 큰 비중은 여전히 초등학교가 차지하고 있다. 초등학교 이주배경 학생 수는 2022년 6,957명에서 2025년 6,578명으로 다소 감소했지만, 전체 이주배경 학생 가운데 절반 이상이 초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는 비교적 안정적인 증가 흐름을 이어갔다. 2022년 3,215명이던 이주배경 학생 수는 2025년 3,529명으로 늘어났다. 증가 폭 자체는 크지 않지만, 이주배경 학생 증가가 중학교 단계에서도 점차 일상적인 변화로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장 큰 변화는 고등학교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고등학교 이주배경 학생 수는 2022년 1,273명에서 2025년 3,051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최근 4년 사이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초·중학교를 거친 학생들이 상급학교로 진학하면서 고등학교 단계에서도 이주배경 학생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흐름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최근에는 단순한 한국어 적응 지원을 넘어 진로·진학 지도와 학업 지원, 심리·정서 지원까지 함께 요구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이주배경 학생 증가는 이제 일부 지역이나 특정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학교의 모습이 달라지는 만큼 교육의 역할도 함께 변화하고 있다. 경북교육 역시 변화하는 학생 구성에 맞춰 보다 세밀하고 지속적인 지원 체계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 들어서고 있다.

학교급	2022	2023	2024	2025
초등학교	6,957명	6,950명	6,827명	6,578명
중학교	3,215명	3,457명	3,472명	3,529명
고등학교	1,273명	1,786명	2,476명	3,051명
합계	11,445명	12,193명	12,775명	13,158명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초·중·등 교육기본통계>

이주배경 학생 부모 출신 국가

경북의 이주배경 학생 구성은 특정 국가 중심에서 점차 다양한 문화권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 중앙아시아권 학생들이 함께 증가하면서 학교 현장의 문화적 배경도 이전보다 훨씬 다양해지고 있는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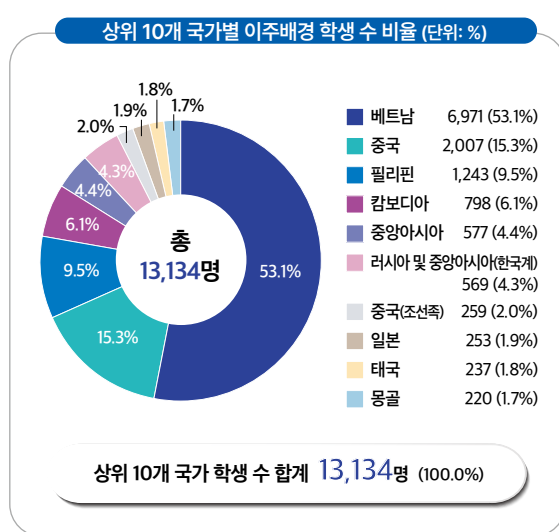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국가는 베트남이었다. 베트남 출신 이주배경 학생은 6,971명으로 전체 이주배경 학생 가운데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국제결혼 가정이 꾸준히 증가한 흐름이 학교 현장에도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중국 출신 학생은 2,007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여기에 중국(조선족) 학생까지 포함하면 중국계 배경 학생 규모는 더욱 커진다. 필리핀과 캄보디아,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 출신 학생들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필리핀 출신 학생은 1,243명으로 세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경북의 이주배경 학생 구성이 특정 국가 중심에서 점차 다양한 문화권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에는 중앙아시아권 학생 증가도 눈에 띈다. 중앙아시아 출신 학생은 577명,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한국계) 학생은 569명으로 나타났다. 고려인 동포 가족과 재외동포 정착 흐름이 학교 현장에도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이주배경 학생 구성은 해마다 더욱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제 학교는 단순히 한국어 적응을 돕는 공간을 넘어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 앞으로는 언어 지원뿐 아니라 문화 다양성 교육과 진로·정서 및 학부모 지원까지 함께 연결되는 보다 종합적인 문화교육 체계가 중요해질 가능성이 크다.

순위	부모출신국가	이주배경 학생 수(명)
1	베트남	6,971
2	중국	2,007
3	필리핀	1,243
4	캄보디아	798
5	중앙아시아	577
6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한국계)	569
7	중국(조선족)	259
8	일본	253
9	태국	237
10	몽골	220
합 계		13,134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초·중등 교육기본통계>

학생 지원의 새로운 과제

학업중단 학생 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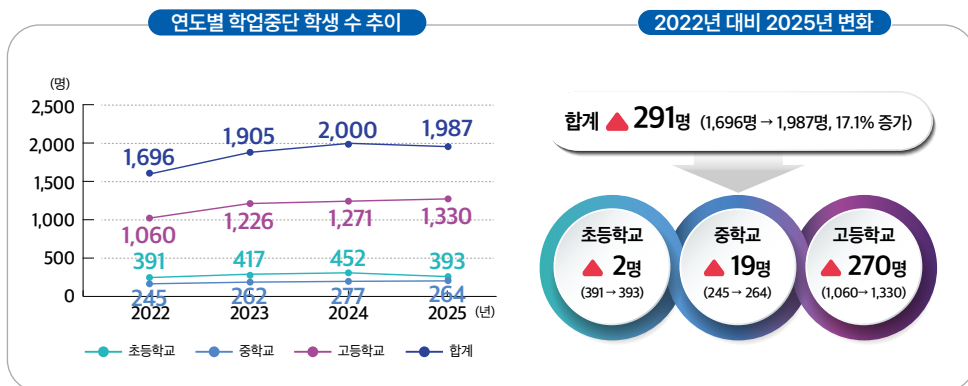
학생 수는 줄고 있지만, 학업중단 학생 문제는 여전히 학교 현장의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경상북도 학업중단 학생 수는 2022년 1,696명에서 2025년 1,987명으로 증가하며 최근 4년 동안 291명이 늘어났다. 2024년에는 처음으로 2천 명 수준에 도달하기도 했다.

가장 큰 비중은 고등학교에서 나타났고, 고등학교 학업중단 학생 수는 2022년 1,060명에서 2025년 1,330명으로 증가하며 전체 증가 흐름을 이끌었다. 전체 학업중단 학생 가운데 고등학생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점도 눈에 띈다. 진로와 진학 부담, 학업 스트레스, 학교 부적응, 심리·정서 문제, 취업과 대안교육 선택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학교 역시 완만한 증가 흐름을 보이며, 2022년 245명이던 학업중단 학생 수는 2025년 264명으로 늘어났다. 규모 자체는 크지 않지만, 학업 부진과 또래관계 문제, 정서·행동 문제 등이 중학교 시기 학업중단 위험과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조기 상담과 개입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학업중단 문제를 단순히 '학교를 그만두는 일'로만 보지 않는다. 학생의 심리·정서와 가정환경, 관계 형성, 진로 고민까지 함께 연결된 문제로 바라보는 흐름이 커지고 있다. 경북교육 역시 상담과 기초학력 지원, 심리·정서 회복 프로그램 등을 통해 보다 촘촘한 학생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학교급	2022	2023	2024	2025
초등학교	391명	417명	452명	393명
중학교	245명	262명	277명	264명
고등학교	1,060명	1,226명	1,271명	1,330명
합계	1,696명	1,905명	2,000명	1,987명



<자료: 경상북도교육청 교육통계/한국교육개발원 초·중·고 교육통계>

학생·학부모 상담 현황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과 학부모 상담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학생들의 심리·정서 문제뿐 아니라 학업과 진로, 학교생활 적응까지 상담 영역이 점차 넓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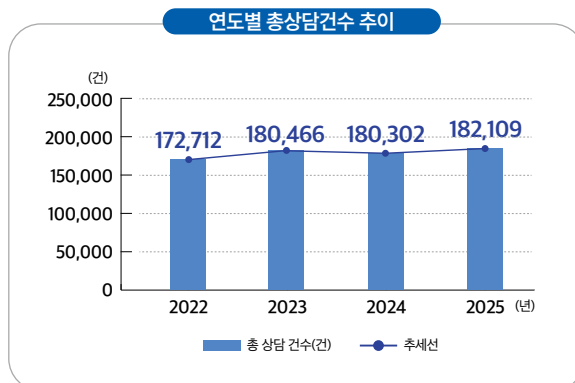
경상북도교육청 학생·학부모 상담 건수는 2022년 172,712건에서 2025년 182,109건으로 증가했다. 최근 4년 동안 9천 건 이상 늘어난 셈이다. 특히 2023년 이후에는 매년 18만 건 안팎의 상담이 이어지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학교 현장에서 상담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전보다 훨씬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에는 학업 스트레스와 우울·불안, 대인관계 어려움, 진로 고민 등 학생들이 겪는 문제도 한층 다양해지고 있다. 학부모 역시 자녀의 학교 생활과 진로, 정서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상담 참여가 함께 늘어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단순한 문제 해결보다 예방 중심 상담과 조기 개입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학교폭력 예방과 학업중단 예방, 정서·행동 문제 지원 등 다양한 영역과도 연결되고 있다. 학교 현장의 상담 방식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이제 상담은 학교 안에서 학생을 이해하고 연결하는 중요한 교육지원 기능으로 자리잡고 있다. 경북교육 역시 학생과 학부모가 보다 안정적으로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심리·정서 지원과 상담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공시연도	총상담건수(건)
2022	172,712
2023	180,466
2024	180,302
2025	182,109



전년 대비 **1,807건 증가 ▲** (2024년 180,302건 → 2025년 182,109건)

<자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교알리미>

건강과 삶을 지원하는 교육

학생 비만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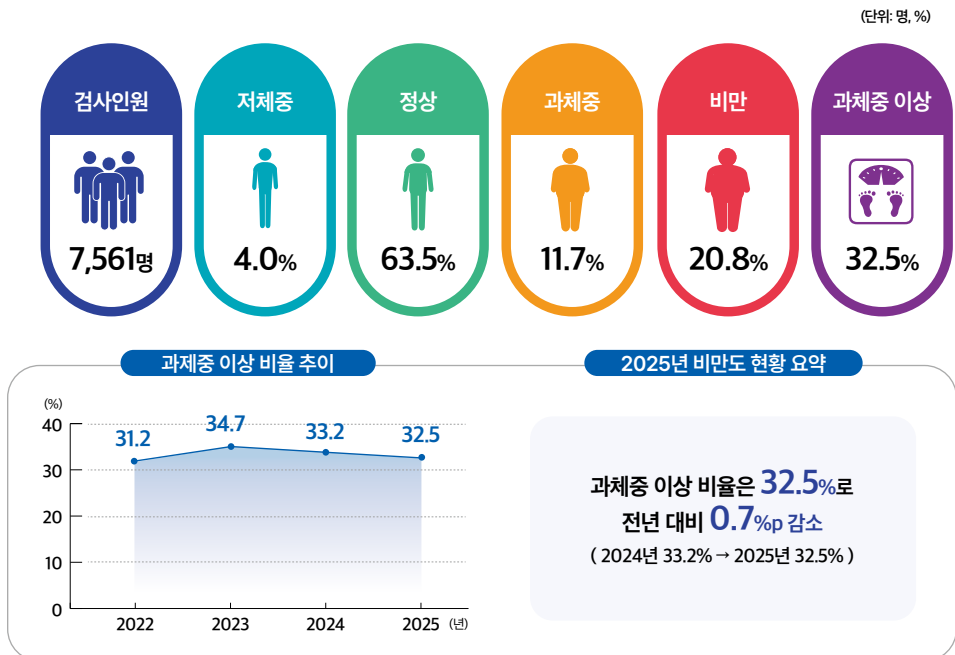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 건강 문제에 대한 관심도 함께 커지고 있다. 특히 비만 문제는 단순한 체형 관리 수준을 넘어 학생 생활습관과 건강, 정서 문제까지 함께 연결되는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교육부가 2026년 4월 발표한 「2025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결과」에 따르면, 경북 지역 학생의 과체중 이상 비율은 32.5%로 나타났다. 학생 10명 가운데 3명 이상이 과체중 또는 비만 상태에 해당하는 셈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정상 체중 학생 비율은 63.5%였으며, 과체중은 11.7%, 비만은 20.8%로 조사됐다. 특히 비만 비율 자체가 과체중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단순 체중 증가 단계를 넘어 실제 건강 위험 수준에 놓인 학생 비중이 적지 않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연도별 흐름을 살펴보면 경북 학생 비만군 비율은 2022년 31.2%, 2023년 34.7%, 2024년 33.2%, 2025년 32.5%로 나타났다. 2023년 이후 다소 낮아지기는 했지만 최근 몇 년간 30% 초반 수준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일시적 현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제 학교는 단순히 공부하는 공간을 넘어 학생들의 건강한 삶을 함께 지원하는 공간으로 역할이 넓어지고 있다. 경북교육 역시 학생 건강과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자료: 2025년 교육부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결과>

학생건강체력 현황

학생들의 건강체력 수준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저체력 학생 비율도 꾸준히 나타나고 있어 지속적인 관리 필요성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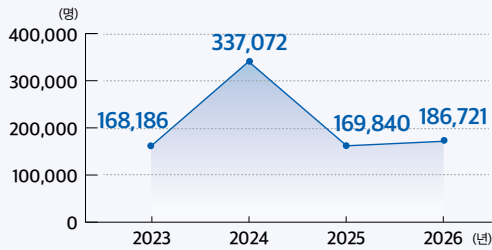
2026년 기준 학생건강체력 검사 인원은 186,721명이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3등급 학생으로 80,015명(42.85%)이었으며, 2등급 학생은 65,771명(35.22%)으로 나타났다. 전체 학생의 약 78%가 2~3등급에 분포하고 있어 전반적으로는 중간 수준 이상의 체력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상위 체력 등급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갔다. 1등급 비율은 2023년 5.66%에서 2026년 6.06%로 소폭 증가했고, 2등급 역시 35% 안팎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3등급 비율은 조금 낮아지는 흐름을 보였다. 2026년 기준 4~5등급 학생은 총 29,611명으로 전체 검사인원의 15.86%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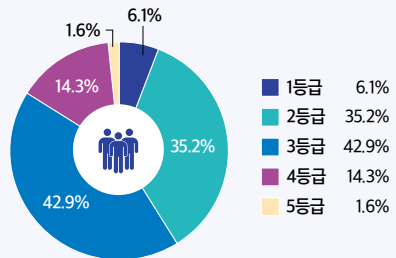
최근에는 학업 중심 생활패턴과 신체활동 감소, 디지털 기기 사용 증가 등으로 인해 학생들의 활동량이 줄어드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체력 문제는 단순 운동 부족을 넘어 생활 습관과 건강관리 전반의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정규 체육수업뿐 아니라 학교스포츠클럽과 아침 운동, 틈새 신체활동 프로그램 등을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저체력 학생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체력 관리 필요성 역시 점차 커지고 있다.

공시연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검사인원수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2023	9,521	5.66	58,730	34.92	74,283	44.17	23,109	13.74	2,543	1.51	168,186
2024	20,340	6.03	120,036	35.61	146,021	43.32	45,939	13.63	4,736	1.41	337,072
2025	10,380	6.11	60,152	35.42	73,398	43.22	23,280	13.71	2,630	1.55	169,840
2026	11,324	6.06	65,771	35.22	80,015	42.85	26,624	14.26	2,987	1.60	186,721

연도별 검사인원수 추이



2026년 등급별 비율



2026년 검사인원수(전체) **186,721명** 전년 대비 ▲16,881명 (10.0% 증가)

<자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교알리미>

Ⅲ. 미래교육, 교실을 바꾸다

01

디지털 기반 교육환경 확대

디지털 기기 보유 현황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수업 방식뿐 아니라 교실의 풍경 자체가 빠르게 달라지고 있다. 칠판과 교과서 중심이던 교실에 태블릿과 노트북, 디지털 기반 수업 환경이 빠르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학교의 디지털 기기 보유 대수는 2023년 268,006대에서 2025년 334,133대로 증가했다. 최근 3년 동안 6만 6천여 대가 늘어난 셈이다. 디지털 기반 수업 환경과 에듀테크 활용 기반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변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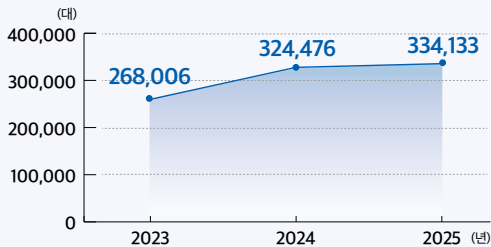
가장 많은 기기를 보유한 학교급은 초등학교였으며, 초등학교 디지털 기기 보유 대수는 2023년 109,392대에서 2025년 137,030대로 증가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역시 꾸준한 증가 흐름을 이어갔다. 특히 학생 참여형 수업과 개별 맞춤형 학습 확대가 본격화되면서 학교 현장에서도 디지털 기기 활용이 일상적인 교육 환경으로 자리잡고 있는 모습이다.

기기 유형 가운데 가장 큰 변화는 태블릿에서 나타났다. 초등학교 태블릿은 2023년 55,019대에서 2025년 84,026대로 크게 증가했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도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학생 참여형 수업과 AI-에듀테크 활용 수업 등이 확대되면서 태블릿 중심의 교육환경이 빠르게 자리잡고 있는 흐름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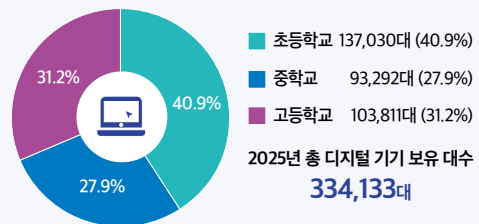
이제 디지털 기기는 단순한 보조 학습도구를 넘어 학교 교육환경의 기본 인프라로 자리잡고 있다. 최근 경북교육이 AI 기반 수업과 디지털 전환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변화와 맞닿아 있다.

구분		2023	2024	2025	총합계
초등학교	총합계	109,392	132,105	137,030	378,527
	노트북	16,154	17,390	17,999	51,543
	데스크탑	37,068	34,018	33,802	104,888
	태블릿	55,019	79,667	84,026	218,712
	기타(클라우드PC 등)	1,151	1,030	1,203	3,384
중학교	총합계	74,455	91,151	93,292	258,898
	노트북	11,250	11,651	12,419	35,320
	데스크탑	22,004	19,788	20,012	61,804
	태블릿	40,569	58,670	59,719	158,958
	기타(클라우드PC 등)	632	1,042	1,142	2,816
고등학교	총합계	84,159	101,220	103,811	289,190
	노트북	16,911	18,294	19,093	54,298
	데스크탑	31,224	28,841	27,935	88,000
	태블릿	35,703	53,834	56,555	146,092
	기타(클라우드PC 등)	321	251	228	800
총합계		268,006	324,476	334,133	926,615

연도별 총 보유 대수 추이



2025년 학교급별 비율



<자료: 경상북도교육청 교육통계/한국교육개발원 초·중·고 교육기본통계>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교원연수

디지털 기반 교육환경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교사의 역할 역시 함께 변화하고 있다. 단순히 기기를 사용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 수업 속에서 AI와 에듀테크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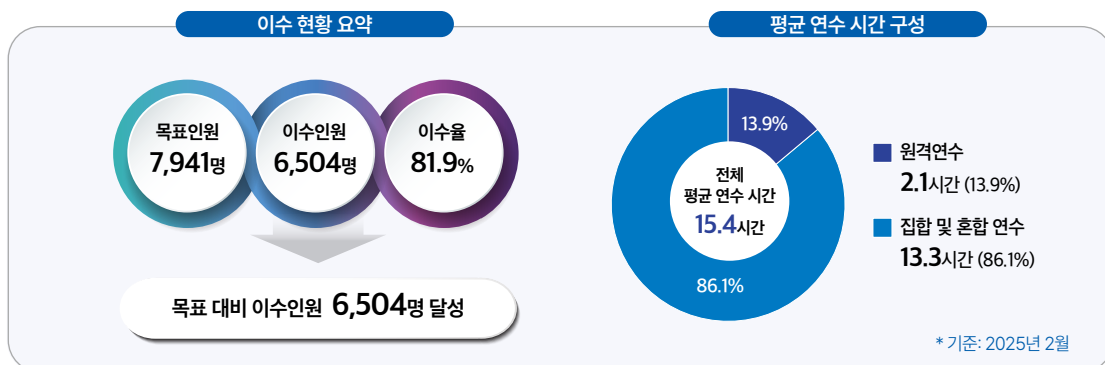
2025년 2월 기준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관련 교원연수 이수자는 6,504명으로 나타났다. 목표인원 7,941명 가운데 81.9%가 연수를 이수한 셈이다. 학교 현장에서 디지털 전환 대응을 위한 교원 연수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평균 연수 시간은 15.4시간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대부분은 집합 및 혼합형 연수였다. 원격 연수 비율은 13.9%였지만, 집합 및 혼합 연수는 86.1%를 차지했다. 단순 온라인 강의보다는 실제 수업 적용과 사례 공유, 실습 중심 연수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디지털 기기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가’보다 ‘수업 속에서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더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의 디지털 수업 설계 역량과 AI 활용 역량, 학생 참여형 수업 운영 역량에 대한 요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디지털 전환은 결국 교실 안에서 완성되며, 그 중심에는 교사가 있다. 경북교육 역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이 단순한 기술 도입에 그치지 않고 실제 수업 변화와 학생 맞춤형 학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원 역량 강화와 현장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목표인원	이수인원	이수율	평균 연수 시간				
			전체	원격	원격(%)	집합 및 혼합	집합 및 혼합(%)
7,941	6,504	81.9%	15.4	2.1	13.9%	13.3	86.1%



<자료: 경상북도교육청 교육통계/한국교육개발원 초·중·고 교육기본통계>

학생 참여형 학교문화의 확산

동아리 활동 현황

학교 안에서 학생들의 배움은 이제 교실 안에만 머물지 않는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동아리 활동이 학생들의 자율성과 관계 형성, 진로 탐색, 학교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교육활동으로 자리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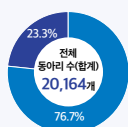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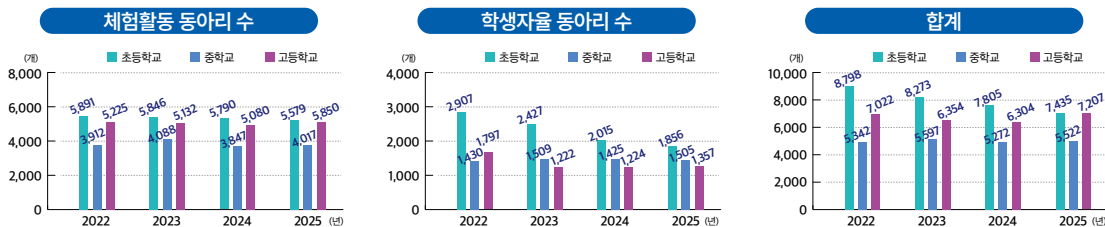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학교의 동아리 수는 학교급별로 조금씩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초등학교는 2022년 8,798개에서 2025년 7,435개로 감소했다. 학생 수 감소와 학교 규모 변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보인다. 다만 여전히 전체 학교급 가운데 가장 많은 동아리가 운영되고 있어 초등학교 단계에서 체험 중심 활동과 학생 참여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학교는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했으며, 2022년 5,342개였던 동아리 수는 2025년 5,522개로 소폭 증가했다. 반면 고등학교는 최근 다시 증가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고등학교 동아리 수는 2022년 7,022개에서 2025년 7,207개로 늘어났으며, 특히 2025년에는 체험활동동아리가 크게 증가했다.

최근에는 학생 스스로 운영하는 자율동아리 중요성도 점차 커지고 있다. 진로와 전공 탐색, 프로젝트 활동, 지역사회 연계 활동 등 학생 주도형 활동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동아리는 단순한 비교과 활동을 넘어 학생들이 스스로 배우고 관계를 맺으며 성장하는 또 하나의 학교 문화로 자리잡고 있다. 경북교육 역시 학생 참여와 자기 주도적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다양한 학교 활동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공시 연도	학교 급	2022			2023			2024			2025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체험활동 동아리 수		5,891	3,912	5,225	5,846	4,088	5,132	5,790	3,847	5,080	5,579	4,017	5,850
학생자율 동아리 수		2,907	1,430	1,797	2,427	1,509	1,222	2,015	1,425	1,224	1,856	1,505	1,357
합계		8,798	5,342	7,022	8,273	5,597	6,354	7,805	5,272	6,304	7,435	5,522	7,207



2025년 전체 동아리 수(합계) 20,164개

<자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교알리미>

방과후 학교 운영 현황

방과후 학교 운영 모습 역시 학교급에 따라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단순 보충수업 중심 이미지가 강했다면, 최근에는 학생의 흥미와 진로, 돌봄과 체험활동까지 함께 연결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고등학교는 여전히 교과 중심 방과후 프로그램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2025년 기준 고등학교 교과강좌는 6,655개로 가장 많았고, 참여 인원도 14만 명을 넘어서었다. 특기적성강좌 역시 함께 확대되고 있고, 2022년 1,285개였던 고등학교 특기적성강좌는 2025년 1,474개로 증가했다.

중학교는 교과와 특기적성 프로그램이 비교적 균형 있게 운영되는 특징을 보였다. 특히 특기적성강좌 참여 인원이 교과강좌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학생 흥미와 진로 탐색 중심 활동이 함께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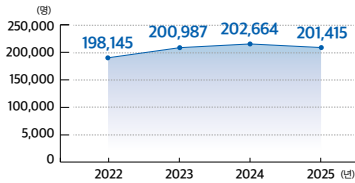
초등학교는 특기적성 중심 운영이 가장 두드러졌으며, 2025년 기준 초등학교 특기적성강좌는 6,663개, 참여 인원은 10만 명을 넘어서었다. 예체능 활동과 체험, 돌봄 연계 프로그램 등이 활발하게 운영되면서 방과후 학교가 단순 학습 보충을 넘어 학생 성장과 돌봄 기능까지 함께 수행하고 있는 모습이다.

최근에는 지역 여건 변화에 따라 방과후 학교 역할도 함께 달라지고 있다. 농산어촌 지역에서는 교육격차 완화와 돌봄 기능 강화 측면에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디지털 기반 프로그램과 온라인 활용 수업에 대한 관심도 함께 확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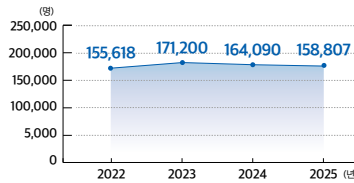
이제 방과후 학교는 정규수업을 보완하는 수준을 넘어 학생 삶과 학교생활을 연결하는 중요한 교육 영역으로 자리잡고 있다. 학생들의 다양한 배움과 경험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함께 깊어지고 있다.

공시연도	학교급	교과강좌		특기적성강좌	
		강좌수	인원수	강좌수	인원수
2022	초등학교	1,416	28,863	5,938	107,200
	중학교	2,268	29,248	2,458	29,245
	고등학교	6,073	140,034	1,285	19,173
2023	초등학교	2,407	34,862	6,412	111,421
	중학교	2,703	34,968	3,065	37,753
	고등학교	6,592	131,157	1,392	22,026
2024	초등학교	2,397	37,955	6,861	112,207
	중학교	2,319	29,181	2,604	30,086
	고등학교	6,187	135,528	1,373	21,797
2025	초등학교	1,718	31,274	6,663	105,344
	중학교	2,259	27,400	2,659	31,098
	고등학교	6,655	142,741	1,474	22,3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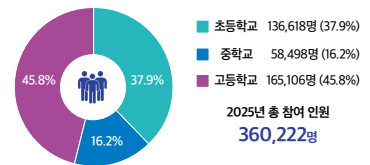
연도별 교과강좌 참여 인원 추이



연도별 특기적성강좌 참여 인원 추이



2025년 학교급별 참여 인원(전체)



<자료: 경상북도교육청 교육통계>

배움의 공간을 넓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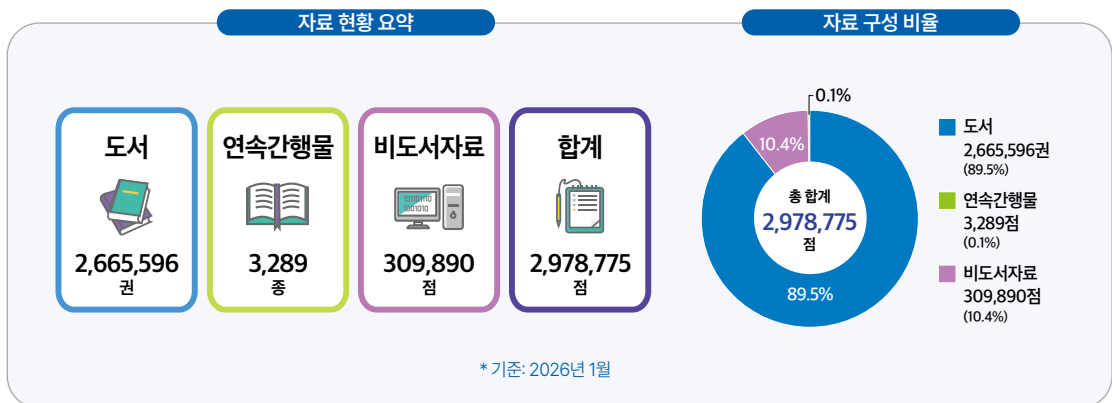
공공도서관 자료 현황

최근 공공도서관의 역할도 빠르게 달라지고 있으며, 단순히 책을 빌려주는 공간을 넘어 지역 주민과 학생이 함께 배우고 머무르는 생활형 학습 공간으로 기능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2026년 1월 기준 경상북도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이 보유한 자료는 도서 266만여 권, 연속간행물 3,289종, 비도서자료 30만여 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만 놓고 보더라도 지역사회 학습·문화 기반으로 상당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도서 자료는 구미도서관이 가장 많았고, 구미도서관은 23만 권이 넘는 장서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안동도서관과 상주도서관, 영주선비도서관 등 주요 거점 도서관들도 비교적 큰 규모의 자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 거점 도서관을 중심으로 학습과 문화 기능이 함께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에는 비도서자료 확대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경상북도교육청정보센터는 다수의 비도서자료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영상자료와 디지털자료, 전자매체 등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가 함께 구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도서관이 단순 독서 공간을 넘어 디지털 기반 정보서비스 공간으로도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제 공공도서관은 학생과 주민이 함께 배우고 연결되는 지역 플랫폼에 가까워지고 있다. 최근에는 독서 활동뿐 아니라 디지털 학습과 문화 프로그램, 평생교육 기능까지 함께 확대되면서 지역사회 안에서 도서관의 역할도 점차 커지고 있다.



<자료: 경상북도교육청 도서관 통계>

학생 교육활동 지원 시설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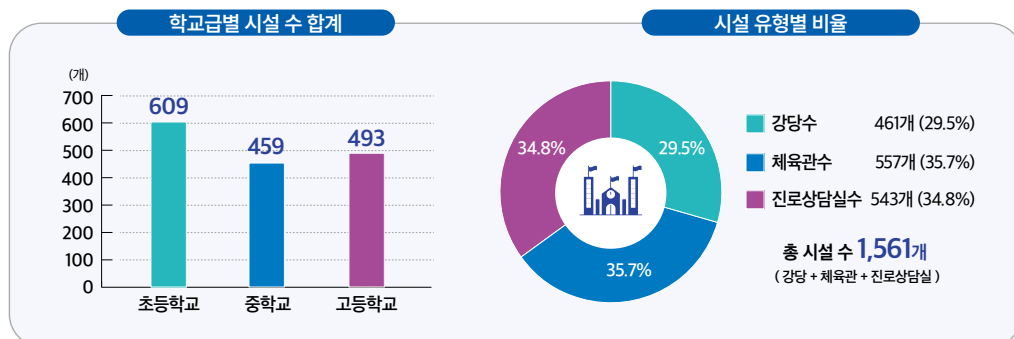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교실 밖 공간의 중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 학생들의 체육 활동과 진로탐색, 공동체 활동, 문화활동 등이 확대되면서 학교 공간 역시 학생 성장 중심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2026년 기준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학교에는 강당 461개, 체육관 557개, 진로상담실 543개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안에서 학생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구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초등학교는 가장 많은 교육활동 지원 시설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초등학교 강당은 250개, 체육관은 274개로 전체 학교급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학생 수와 학교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초등학교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고등학교 역시 진로 중심 공간 활용이 활발하게 나타났다. 고등학교 진로상담실은 231개로 가장 많았으며, 체육관 수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대학 진학과 취업, 진로 설계 등 학생들의 진로·진학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라는 점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최근 학교 공간은 단순히 수업을 듣는 장소를 넘어 학생 활동과 관계 형성, 진로 탐색까지 함께 이루어지는 생활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 체육관과 강당, 진로상담실 같은 공간이 점차 학생 성장 지원 기능과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

공시연도	학교급	강당수	체육관수	진로상담실수
2026	초등학교	250	274	85
	중학교	102	130	227
	고등학교	109	153	231
합계		461	557	543



<자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교알리미>

IV. 안전하고 따뜻한 학교를 향하여

01

학교 안전교육의 확대

안전관리 교육 현황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안전교육 범위도 점차 넓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교통안전과 생활안전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재난 대응과 약물 예방, 사이버중독, 학교폭력 예방까지 학생 삶 전반과 연결된 안전교육으로 확대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학교의 안전관리 교육 시수는 2023년 이후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전체 안전교육 시수는 2023년 41,300시수에서 2026년 45,706시수로 증가했다. 학교 현장에서 안전교육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변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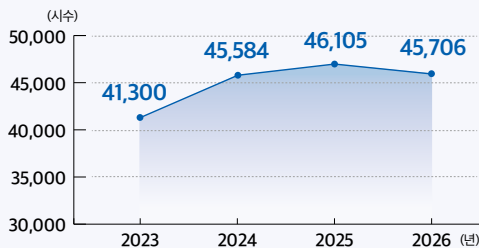
가장 많은 안전교육이 이루어진 학교급은 초등학교였으며, 생활안전과 교통안전, 폭력예방·신변보호교육 등이 높은 수준으로 운영되면서 기초 안전역량 교육 중요성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는 학교폭력과 사이버 환경 관련 교육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고등학교는 생활안전과 직업안전 영역이 함께 강화되는 흐름을 보였다.

최근에는 약물·사이버중독 예방교육과 폭력예방 교육이 전 학교급에서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디지털 기기 사용 증가와 사이버폭력, 청소년 정서 문제 등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학교 안전교육 역시 학생 생활환경 변화에 맞춰 함께 달라지고 있는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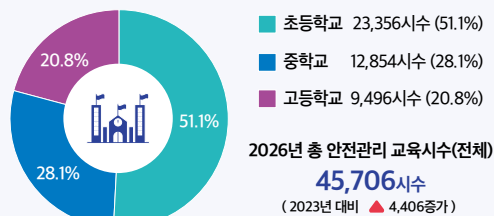
이제 안전교육은 단순한 사고 예방을 넘어 학생 삶을 보호하고 회복하는 교육으로 확대되고 있다. 앞으로는 학생 참여형 안전교육과 체험 중심 교육, 심리·정서 지원까지 함께 연결되는 안전교육 중요성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공시연도	학교급	교통안전 교육시수	생활안전 교육시수	약물사이버 중독예방 교육시수	응급처치 교육시수	재난안전 교육시수	직업안전 교육시수	폭력예방· 신변보호 교육시수	합계
2023	초등학교	5,179	5,743	2,669	1,023	2,902	895	3,851	22,262
	중학교	2,489	2,507	1,491	538	1,553	641	2,252	11,471
	고등학교	1,630	1,651	977	368	1,016	434	1,491	7,567
2024	초등학교	5,385	5,892	3,112	1,070	2,960	1,026	4,179	23,624
	중학교	2,669	2,673	1,964	592	1,633	815	2,705	13,051
	고등학교	1,803	1,833	1,353	431	1,115	553	1,821	8,909
2025	초등학교	5,425	5,912	2,988	1,062	2,973	1,030	4,158	23,548
	중학교	2,702	2,695	1,904	605	1,658	833	2,786	13,183
	고등학교	1,884	1,900	1,475	425	1,143	589	1,958	9,374
2026	초등학교	5,361	5,940	2,853	1,058	2,936	1,033	4,175	23,356
	중학교	2,638	2,643	1,862	573	1,604	802	2,732	12,854
	고등학교	1,886	1,958	1,444	445	1,137	607	2,019	9,496
합계		39,051	41,347	24,092	8,190	22,630	9,258	34,127	178,695

연도별 총 안전관리 교육시수 추이



2026년 학교급별 교육시수



<자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교알리미>

V. 숫자로 읽는 경북교육의 미래

01

숫자가 보여주는 경북교육의 변화

안전관리 교육 현황

최근 경북교육의 변화는 단순한 통계 수치 이상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 학생 수와 학교 수, 학급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초등학교 단계에서 변화 폭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학령인구 감소는 더욱 가속화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학교 운영과 교육환경 전반에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그러나 숫자가 보여주는 변화는 단순한 축소만은 아니다. 학생 수가 줄어드는 만큼 학교는 오히려 더 세밀한 역할을 요구받고 있으며,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교육의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 구성 역시 빠르게 달라지고 있고, 이주배경 학생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중·고등학교 단계에서 증가 흐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제 학교는 단순한 한국어 적응 지원을 넘어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 학생 지원 방식 역시 이전보다 훨씬 다양해지고 있다. 상담 수요 증가와 학업 중단 예방, 심리·정서 지원 확대 등은 최근 학교 현장에서 학생 삶 전반을 함께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디지털 전환 역시 경북교육의 큰 변화 가운데 하나다. 태블릿과 노트북 보급 확대, 디지털 기반 수업 환경 구축, AI·에듀테크 활용 확대 등은 교실 풍경 자체를 빠르게 바꾸고 있다. 최근에는 단순히 기기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가보다 수업 속에서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더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으며, 교사의 디지털 역량과 학생 참여형 수업에 대한 관심도 함께 커지고 있다. 학교는 이제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공간이 아니라 학생의 배움과 삶을 함께 연결하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 안전과 건강, 정서 지원 역시 중요한 교육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는 약물·사이버중독 예방과 학교폭력 예방, 재난 대응 교육, 학생 건강관리와 체력 증진 프로그램 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최근 학생들의 생활환경 변화와 디지털 환경 확대는 학교 안전교육과 생활교육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학교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배우고 생활할 수 있도록 보다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숫자가 보여주는 변화는 분명하며,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학교의 역할은 오히려 더 넓어지고 있다. 경북교육은 지금 학생 감소 시대 속에서 새로운 교육의 방향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들어서고 있다.

경북교육이 나아갈 방향

앞으로의 경북교육은 단순한 규모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중심 교육으로 더욱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 학생 수 감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동시에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더 집중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 나타나는 학생 맞춤형 지원 확대와 개별 성장 중심 교육 역시 이러한 흐름과 연결되고 있다.

특히, 미래교육은 더 이상 기술 중심 변화만으로 설명되기 어려우며, AI와 디지털 기반 교육환경 확대 역시 결국은 학생의 배움과 성장, 삶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로 연결될 때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앞으로는 디지털 기술을 단순히 활용하는 수준을 넘어 학생 참여형 수업과 자기주도적 학습, 개별 맞춤형 교육으로 이어지는 방향이 더욱 중요해질 가능성이 크다.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인구 변화는 학교만의 문제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학교와 지역사회, 마을과 공공기관이 함께 연결되는 교육 생태계 구축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농산어촌 지역에서는 학교가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지역 공동체를 유지하는 중요한 공간 역할까지 함께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 연계 교육 의미도 더욱 커지고 있다.

또한 앞으로는 학생 수 감소 속에서도 어떻게 교육의 질을 유지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작은학교 운영과 공동교육과정, 미래학교 체제, 디지털 기반 교육환경 구축 등은 모두 지속가능한 학교체제를 만들기 위한 변화 과정과 연결되고 있다. 규모 변화 속에서도 학생 맞춤형 교육과 교육격차 완화를 함께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학교 모델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 나타나는 여러 변화들은 결국 하나의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다. 학교는 더 이상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공간에 머물지 않는다. 학생들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며 자신의 진로와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함께 지원하는 공간으로 역할이 넓어지고 있다. 앞으로의 경북교육 역시 학생들의 삶과 지역의 미래를 함께 연결하는 방향 속에서 새로운 변화를 이어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

참고자료

- 경상북도교육청. (2022). 2022 경북교육추진 현황 보고서.
- 경상북도교육청. (2023). 2023 주요업무계획 추진 현황 보고서.
- 경상북도교육청. (2024). 2024 주요업무계획 추진 현황 보고서.
- 경상북도교육청. (2025). 2025 주요업무계획 추진 현황 보고서.
- 경상북도교육청. (2026). 교육통계.
<https://www.gbe.kr/main/na/ntt/selectNttList.do?mi=3522&bbsId=1878>
- 한국교육개발원. (2026). 초·중등 교육통계. <https://school.kedi.re.kr/>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6). 학교알리미.
<https://www.schoolinfo.go.kr/Main.do>
- 경상북도청. (2026). 경상북도 통계.
<https://gb.go.kr/Sub/datastat/index.do>
- 국가데이터처. (2026). KOSIS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index/index.do>





PART

3

사진으로 보는 순간



2023~2026 주요 활동

2023~2026 주요 활동



① 경북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추진 활성화에 앞장

23년 2월 3일 교육부-경북도청-경북교육청-포항시-울릉군의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9월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서 전국 최다 7곳 선정

상_ 효자중 교사 및 학교복합시설 조감도
하_ 하양초 화성분교장 학교복합시설 조감도

② 경북교육청 경주한국어교육센터 개소

전국 최초 공립형 대안교육 위탁기관, 한국어 교육센터 3월 21일(화) 개소. 26년 6월 현재 까지 13기 운영



③ 경북 직업계 고등학생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4연속 종합우승

26교 123명 출전, 36개 직종에서 금 8개, 은 10개, 동 15개, 우수 11개, 장려 31개 등 종합우승 달성, 4년 연속 종합우승 달성 까지 13기 운영



⑤ 경북교육청, 제52회 전국소년체전역대 최고 성적 달성

23년 5월 27일 ~ 30일 4일간 울산광역시 일원에서 개최된 '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금 48개, 은 42개, 동 48개 합계 138개의 메달로 역대 최고 성적 달성

구미신평초 씨름부 6학년 김도진 선수, 초등부 씨름 부문 장사급(120kg 이하) 우승

④ 경북교육청, 온라인 나눔장터 ‘따알기 마켓’ 전국 최초 개장

5월1일 온라인 나눔장터인 ‘따알기마켓’ 개장. 따알기마켓은 ‘따뜻하고 알뜰하여 기분좋은 나눔장터’라는 의미로 도내 교직원들이 교수-학습 및 업무에 필요한 자료와 물품을 주고받을 수 있는 온라인 마켓





⑥ 경북교육청,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3회 연속 종합 3위

제104회 전국체육대회(10.20.(금), 전남)에 고등부 선수단이 최근 3회 대회 연속 종합 3위 달성.

금 42개, 은 43개, 동 48개, 합계 133개(시범경기 포함)의 메달을 획득, 종합 3위 성적 달성

 울곡고 2학년 최강인 선수, 수영 다이빙 부문 5관왕

⑦ 경북교육청, 25년 전면 시행 대비 늘봄학교 시범운영 활성화

23년 3월부터 41개교에서 늘봄학교 시범 운영, 'K(경북형)-늘봄학교'모델 발굴. 도시형, 농번기형, 어번기형, 유·초 이음형, 지역연계형 등 다양한 모델 제시



⑧ 6.25전쟁 정전 70주년, 평화로·미래로 순례길 걷기 행사 개최

7월 24일부터 4박 5일간, 6.25전쟁의 참상과 전후 복구 과정 등 정전의 역사적 의미에 대한 미래 세대의 역사인식제고를 위해 4개 권역별 '평화로·미래로 순례길 걷기 행사' 개최



⑨ 경상북도교육청 발명교육체험관 관람객 20만 명 돌파

22년 3월 전국 최초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로 개관
이후 2달 만에 최단기 관람객 20만 명 돌파



⑩ 경북교육청, 과테말라 방문 교육정보화 교류협력

23년 7월 7일(월)부터 14일(월)까지 8일간 교육정
보화 교류협력을 위한 과테말라 공화국 방문. 정보화
기자재 299대에 대한 기증서 전달식과 새로운 양해
각서 체결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 진행



⑪ 네이버 클라우드와 업무협약 체결, 학교지원종합자료실 플랫폼 구축

23년 10월, 행정업무 지원 시스템인 학교지원종합
자료실은 인공지능 기술을 융합해 혁신적이고 새로
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신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인공지능 '하이퍼 클로바 X'
를 전국 최초로 도입

⑫ 국제교육포럼 개최

23년 10월 18일~19일 2일 간 초·중등 직업교육을
주제로 제1회 국제교육포럼 개최





① K-EDU 원년! 에티오피아 디지털 교육 세계화에서 출발

24년 1월 9일부터 13일, 3박 5일의 일정으로 에티오피아 연방 민주공화국을 방문. 정보화 장비 지원과 교원 정보화 연수 등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 신품 정보 화장비, 따뜻한 경북-R컴퓨터, 수업 콘텐츠, 현지 교원 연수 등 교육 정보화 지원과 디지털 교육 교류 협력

② 경북교육청, 전국 최초 '직업계고 해외 우수 유학생 입학' 첫걸음

24년 2월 19일~28일, 10일 간 경북교육청 해양수련원에서 직업계고 해외 우수 유학생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 실시. 전국 최초 직업계고 해외 우수 유학생에는 48명이 입학



③ 일상 홀로서기, 꿈담채 개관

23년 12월 개관, 24년부터 본격적인 운영.
요리, 식당 주문, 대중교통, 우체국, 은행 이용 등 일상
홀로서기를 위한 숙박형 일상생활 훈련 프로그램 구성



④ 질문이 넘치는 교실

23년 9월부터 시작된 질문이 넘치는 교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도지정 연구학교 2교, 교육부 지정 선도학교 15교, 정책연구 진행. 질문공책 및 워크북, 질문축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질문을 끌어낼 예정

⑤ 경북교육청, 경북형 공동교육과정 (도·농 상생학교) 운영

24년 울릉도의 3개 학교 11학급과 포항 3교 11학급과 연계해 학교·학급 간 온오프라인을 통해 공동 교육과정 운영을 시작으로 확대

9월 27일(금) 포항 초서초등학교-울릉 천부초등학교 공동 수업





⑥ 삶 속에서 성장하는 경북희망학교

2021년 공모를 통해 희망학교 1교 지정. 2022년 ~2027년 5년 간 운영. 인근 1000명 이상 과대학교 학생이 연 100명씩 유입되며 학교 과밀화 문제 해결에 큰 역할

⑦ 미래열매, 미래를 열어가는 매일 운동으로 건강하고 활기차게

학교에서 아침, 틈새, 정규수업, 방과후, 주말 등 다양한 시간을 이용해 주 5일, 1회 60분씩 운동하도록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도록하는 경북형 매일운동



⑧ 도전! 꿈 성취 인증제

인문, 봉사, 체육, 예술, 영어 5가지 영역에서 목표를 설정, 인성역량을 함양하는 맞춤형 인성교육 프로그램. 학교장, 교육장, 교육감 인증제로 단계별 운영. 25년 부터는 학부모까지 확대 운영



⑨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대통령상 수상

2017년, 2018년에 이어 3번째 대통령상 수상. 전 출품작 모두 수상(대통령 1, 최우수 2, 특상 7, 우수 5, 장려 6)하는 등 발명교육에서 두각



⑩ 온올림 창단

24년 12월 경북교육청문화원에서 온올림 앙상블 창단 연주회 개최



⑪ 영덕도서관 개관

10월 영덕도서관 확장이전 및 개관. 총 4층으로 어린이 자료실, 스마트워크부스, 종합자료실, 열람실 등으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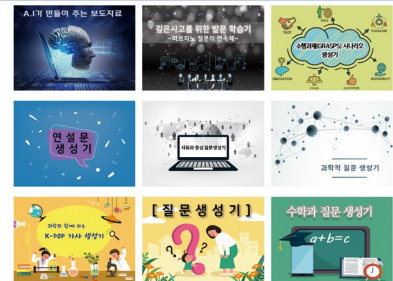


① 산불 피해 지역 및 학생 지원

피해학생 146명에 6,740만원 장학금 지급, 마스크 10만장 지원, 긴급구호물품 및 임시거주공간 지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및 교육복지 119 등 운영

② AI 기반 교육·행정 혁신 확산

60여 종의 AI 기반 웹앱 개발, 교육과정 편성, 생활지도, 상담, 학사 업무 등 학교 현장 전반에 유용한 프로그램 보급





③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

경계선 지능·난독 학생 대상 치료비 최대 130만원 지원, 인공와우 지원, 보행재활로봇 등 맞춤형 지원 확대, 장애학생 취업지원관 제도 도입

④ 정주학교 시범 운영 9교 선정

교육을 이유로 지역을 떠나지 않게 하고, 교육적인 필요에 따라 지역으로 찾아오게 하는 지역 맞춤형 특화 교육 모델인 정주학교 시범 운영을 위해 도내 9개 학교(초 4교, 중 3교, 고 2교)를 선정

⑤ 보행재활로봇 구입비 지원

보행재활로봇 구입비 지원. 경산자인학교에 1억원 예산 투입, 보행 보조와 재활 치료 지원





⑥ 재외 한국학교 학생을 위해 책꾸러미 기증

‘복스타트 책꾸러미 기증’ 사업으로 재외 한국인 학생 한글교육 지원. 24년 일본 소재학교에 8,000권, 25년 연변 및 우즈베키스탄 소재 학교에 1만여권 기증

⑦ 전국기능경기대회 6년 연속 종합우승

25년 9월 20일~26일, 7일간 광주공업고등학교에서 열린 2025 광주광역시 제60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전국최초 학생부 8년 연속 우승 달성



⑧ 수학문화관 개관

25년 10월 14일 수학문화관(구 경북과학고 부지) 개관. 유아를 위한 놀이형체험부터 시를 활용한 콘텐츠까지 모든 연령대를 아우르는 콘텐츠 마련



⑨ K-EDU EXPO 개최

25년 10월 26일~28일, 3일간 경주 발명인공지능교육원(구, 발명체험교육관) 일원에서 APEC 공식 부대행사 K-EDU EXPO 개최





① 소백산 영주오토캠핑장 개장

2월, 부석초 남대분교장 부지에 조성된 영주소백산 오토캠핑장 개장. 포항, 김천, 영덕 오토캠핑장 4곳 운영 중

② AI 경북교육 비전 포럼 개최

2월, 경주더케이호텔에서 경북교육 AI 포럼 개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국가 인공지능 전략위원회 관계자와 교육청, 학교 재직자의 만남으로 정책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논의



③ 온그림 창단

3월 21일 구미 해마루초등학교에서 교육청 소속 발달장애인미술단 온그림 창단식 개최



④ 발명인공지능교육원 승격, 공식 출범

기존 발명체험교육관과 메이커·인공지능교육관을 통합하여 3월 발명인공지능교육원이 직속기관으로 승격, 공식 출범

⑤ 수업보듬이로 교실 안에서 함께 성장

26년 3월부터 정규수업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수업보듬이 자원봉사제 제도를 도내 80개 학교에 도입





PART

4

4년간의 성장



1. 놀이가 삶이 되는 곳에서

조향희 포항장량유치원 / 원감

2. 4년의 스케치, 서툰 발걸음의 기록

오가현 문경여자중학교 / 교사

3. 흔들리며 피어난 꽃이 더 단단하듯: 어느 새내기 주무관의 성장기

김하선 의성교육지원청 / 주무관

4. 지유야, 공교육이라는 단단한 품 안에서 우리는 매일 도전하고 성장하고 있어

손지영 윤곡초등학교 / 학부모

5. 울릉도에서 보냈던 학창생활을 마무리하는 글

김효진 원광대학교 한의예과 1학년 / 울릉고 졸업생

놀이가 삶이 되는 곳에서

-포항장량유치원 4년, 경북미래교육의 현장을 기록하며-

조향희 포항장량유치원 / 원감



첫 발걸음: 교육청에서 현장으로

2023년 3월 첫 출근 날, 나는 설렘과 긴장감을 안고 평소보다 한참 일찍 집을 나섰다. 수년간 교육청에서 장학사로 유아교육 정책을 지원하다 처음으로 원감 발령을 받았기 때문이다. 내가 부임한 곳은 포항시 북구의 '제1호 공립 단설 유치원'으로 세간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문을 연 포항장량유치원이었다. 그동안 교육청 정책 문서 안에서만 머물던 단어들—'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 '교육 공동체', '따뜻한 경북교육'이 비로소 숨 쉬는 현실로 펼쳐질 순간이었다.

입학식 날, 처음으로 등원하던 아이들의 눈빛이 아직도 생생하다. 세상 모든 것이 낯설고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교실 유리창에 조그만 손을 붙인 채 바깥 놀이터를 바라보던 만 3세 아이들. 그 맑은 눈빛이 내게 조용히 묻는 것 같았다. '선생님, 여기서 뭘 하는 거예요?' 나는 마음속으로 나직이 대답했다. '마음껏 놀면 돼. 그게 시작이란다.'

경북미래교육의 비전이 살아 숨 쉬는 공간

포항장량유치원이 문을 연 2023년은 경상북도교육청이 '경북미래교육 비전'을 선포한 지 6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다. 비전이 가리키는 유아교육의 방향은 선명했다. '유치원은 놀이로 배운다'는 단 한 문장. 배움 그 자체가 삶이 되도록 유아의 일상적인 놀이를 교육과정의 중심에 두겠다는 선언이었다. 장학사 시절, 나는 이 문장을 정책 문서에 수도 없이 써 내려갔다. 하지만 이제는 그 문장을 교사들과 함께 매일 현장에서 실현해 나가야 하는 자리에서 서게 된 것이다.

모든 것이 처음이라 서툴기만 했던 개원 첫해의 긴장감은 지금도 생생하다. 유치원 운영 규정부터 교육과정 편성, 방과후 과정 계획, 교직원 업무 분장까지 참고할 만한 전례가 부족했기에 모든 것을 무에서 유로 만들어가야 했다.

우리는 딱딱한 정책의 언어가 아닌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언어로, 교사들과 머리를 맞대며 우리만의 철학을 세워나갔다. '유아가 주인이 되는 놀이중심 교육과정', 이것이 포항장량유치원이 세상에 내딛는 첫 문장이 되었다.



교사가 성장해야 아이가 자란다

신설 유치원이 마주한 가장 큰 과제는 ‘교사의 성장’이었다. 신규 발령을 받았거나 경력이 짧은 교사들이 다수였기에, ‘유아가 주도하고 교사는 관찰하며 지원한다’는 2019 개정 누리과정을 실제 교실에 구현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이론과 현실 사이의 깊은 간극을 메워가는 치열한 과정이 필요했다.

우리는 매월 2회 ‘교원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열고 수업을 나눴다. “오늘 아이들이 모래에 물을 부어 강을 만들었어요. 저는 그냥 보고만 있었는데, 아이들에게 배움이 일어나도록 하려면 대체 언제 개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한 신규 선생님의 솔직한 고백에 모두가 깊이 공감하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교사가 무조건 개입해서 놀이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놀이 몰입을 깨지 않고 적절한 타이밍이 올 때까지 가만히 관찰하며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놀이중심 교육과정의 진짜 핵심임을 우리는 함께 배워갔다.

2024학년도에 접어들면서 교사들의 눈빛이 몰라보게 달라졌다. 아이들의 놀이를 관찰하고 기록하며, 그 기록을 바탕으로 다음 날의 교육과정을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흐름이 자리를 잡았다.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이 커질수록, 교사들의 얼굴에도 보람 어린 미소가 번졌다.

여기에 ‘디지털 기반 시범유치원’을 운영하며 디지털 온(ON)과 생태 감성 오프(OFF)의 균형을 잡기 위해 애썼다. 교육청의 지원으로 교실 내 에듀테크 환경을 탄탄히 다졌고, 아이들은 단순히 스크린을 바라보는 데 그치지 않고 스마트 기기로 동식물을 관찰하며 자신들의 놀이 과정을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는 멋진 ‘어린이 크리에이터’로 자라났다.

동시에 도심 속 유치원이라는 한계를 넘어 경북교육청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발맞춘 ‘초록 놀이터 프로그램’을 이어갔다. 유치원 마당에 유아들이 직접 꽃을 심어 ‘우리반 정원 가꾸기’에 동참하고, 매월 숲으로 현장체험학습을 떠나고, 하늘놀이터 생태학습장에서 상추와 방울토마토를 직접 기르며 아이들은 자연의 경이로움과 생명의 소중함을 온몸으로 체득해 나갔다.





162명의 아이들, 각자의 속도로 안전하게 자라다

개원 첫해, 만 5세였던 한 아이는 심한 분리불안으로 등원 첫날 엄마 손을 놓지 못하고 서럽게 울며 교실에 들어가는 것을 힘들어했다. 그랬던 아이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친구들에게 “내가 만든 집이야, 같이 놀자! 어떻게 만들었냐면 말이야~” 하고 먼저 조잘거리며 어울리는 모습을 보았을 때의 보람이 아직도 기억이 난다. 특수학급 아이들도 마찬가지였다. 장애를 가진 유아와 비장애 유아가 같은 마당에서 함께 뒹굴고, 아웅다웅 다투고, 다시 화해하며 만들어가는 관계야말로 ‘따뜻함을 더하는 학교’라는 경북미래교육의 가치가 가장 진하게 살아 숨 쉬는 장면이었다. 현재 우리 유치원은 일반학급 9학급과 특수학급 2학급의 아이들 총 162명이 함께 어우러져, 저마다의 속도로 씩씩이 배우며 성장하고 있다.

한편으로 포항은 2017년 큰 지진을 겪은 도시다. 그렇기에 이곳 아이들에게 안전교육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살을 지키는 교육’이다. 우리 유치원은 가정에 지진대비 및 화재대피 교육훈련 매뉴얼을 안내하고, 매월 실제 같은 재난대피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생존의 문제라는 것을 교직원 모두가 가슴 깊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부모, 든든한 교육의 동반자가 되기까지

학부모님들과 깊은 신뢰를 쌓는 일 또한 미룰 수 없는 과제였다. “우리 애가 하루 종일 놀기만 한다고요?” 개원 초기, 학부모님들 입에서 나온 이 한마디는 신설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로서의 당연한 불안감이었다.

우리는 교육과정 설명회를 열어 놀이중심 교육의 진정한 의미를 찬찬히 설명해 나갔다. ‘그냥 노는 것 같은데 정말 괜찮을까?’ 하는 염려에 대해, 놀이야말로 아이들에게 가장 높은 수준의 배움이라는 것을 실제 사례와 연구 결과로 진심을 다해 설득했다.

경북교육이 지향하는 ‘조화로운 우리’는 비단 아이들 사이의 관계만을 뜻하지 않는다. 교사와 학부모, 가정과 유치원이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하는 단단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이기도 하다. 포항장량유치원은 학부모 참여 수업, 가족 어울림 운동회, 아나바다 장터, 책 읽어주는 학부모 모임, 학부모 자원봉사자 등을 통해 부모님들을 단순한 관찰자가 아닌 ‘교육의 파트너’로 함께하고 있다.



미래교육의 씨앗은 지금 이 자리에

2023년 3월 첫걸음을 댄 우리 유치원이 어느덧 네 번째 봄을 맞이했다. 아이들과 교직원, 학부모라는 소중한 교육 공동체가 함께 빚어낸 4년간의 발자취를 돌아본다. 미래형 선도유치원이라는 환경 덕분에 교사들은 아이 한 명 한 명의 놀이를 충분히 관찰하고 기록할 수 있었고,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구현해 내는 교육과정은 내가 교육청에서 꿈 꾸던 ‘질 높은 유아교육’의 바로 그 모습이었다.

2026학년도의 포항장량유치원은 아이들이 더 자유롭게 탐색하고 놀이에 몰입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여전히 진화 중이다. 미래교육이 강조하는 창의적 사고, 협력, 자기주도성 같은 역량은 결국 유아기에 마음껏 놀았던 충분한 경험의 토대 위에서만 싹아 올려진다는 것을 지난 4년의 시간이 똑똑히 증명해 주고 있다.

개원 첫해에 만 5세로 입학했던 아이들은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다.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 친구와 다투고 화해하며, 막막한 문제 앞에서도 “내가 한번 해볼게!” 하고 씩씩하게 손을 들 수 있는 힘은, 다름 아닌 우리 유치원 마당에서 흙을 파고 물을 붓던 그 반짝이던 시간 덕분이라고 나는 굳게 믿는다.

교육청에 근무하던 시절, 좋은 정책이 있으면 현장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현장에서 깨닫는다. 유치원 현장의 한 아이, 한 명의 교사, 한 명의 부모가 비로소 정책을 살아 숨 쉬게 만든다는 것을.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교육’은 포항장량유치원 교실에서 매일 아침 피어나는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로 비로소 완성되고 있다.



4년의 스케치, 서툰 발걸음의 기록

오가현 문경여자중학교 / 교사



“선생님, 사진 보고 따라 그리면 안 돼요?”

미술 시간에 아이들이 가장 자주 던지는 질문 중 하나다. 머릿속의 이미지와 손이 그려낸 결과물의 불일치가 두려워 자꾸만 도구 뒤로 숨으려는 아이들을 보며, 문득 4년 전 나의 첫해를 떠올린다. 그때의 나 역시 아이들의 결과물이 내가 생각한 수준만큼 만들어지지 않을까 봐 전전긍긍했다. 교과서에 나오는 정형화된 이론을 쏟아붓고, 전시회에 걸어도 손색없을 만큼 매끄러운 결과물을 뽑아내는 것만이 유능한 미술 교사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늘 조금했다. 아이들이 서툰 붓질을 할 때마다 마음이 조마조마했고, 통제되지 않는 수업 시간은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활동 하나가 끝날 때마다 ‘내 수업이 아이들에게 유익했을까?’라는 의문이 꼬리를 물었다. 이론에 기반한 탄탄한 표현 실력을 갖추는 ‘과정’ 중심의 수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한 걸음 물러서 보니 그 과정이 사실은 ‘결과’를 향한 허우적거림이었음을 깨달았다. 평생 교육 관점에서 미술을 가르치겠다고 내 작은 목표가 흐려지고 온전한 표현의 즐거움을 주지 못했다는 점, 나아가 아이들이 미술을 멀리하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자존감은 바닥을 쳤다. 과연 내 수업은 아이들에게 정말 유익했을까.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들이 꼬리를 물었다.

1. 지도안 속 아이들, 지도안 밖의 아이들

경북의 신규 교사라면 누구나 거치는 장학이 있다. 이름하여 ‘심층수업컨설팅’. 강산이 변하는 흐름을 최소 한 번은 지켜보았을 법한 경력의 동교과 선배 교사들을 컨설턴트로 초청하여 이루어진다. 그때는 배워보겠다는 마음보다도 ‘잘해보겠다’라는 마음 하나로 몇 날 며칠을 준비했다. 사실 그 마음은 임용고시 2차에서 선보이는 수업 시연 준비와 동급으로, 더 떨렸으면 떨렸지, 절대 쉽지 않았다. 교과서를 분석하고 다채로운 예시 작품을 준비하고, 몇 번이고 발문을 연습한 뒤 공개 수업을 선보였다.

하지만 수업을 진행할수록 머릿속은 점점 복잡해졌다. ‘왜 아무도 대답하지 않지? 지난주에 수업한 건데?’, ‘분명 설명했는데 왜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일까?’ 자책과 원망이 동시에 피어올랐다. 그리고 나의 복잡한 마음은 컨설팅 협의회에서 던진 선배 교사의 묵직한 한마디로 모두 정리되었다.

“이 아이들 모두가 미술을 전공하지는 않아요. 그러니 수업을 조금만 가볍게 해보세요.”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얼굴이 화황하다. ‘열정’인 줄 알았던 것이 사실은 ‘욕심’으로 드러났을 때, 그리고 그것을 제 3자로부터 확인 사살 받았을 때는 너무 부끄러워서 당장 숨고 싶었다. 이후 나는 부끄러움을 삼키며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기로 했다. 미술 전공자가 아닌 아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미술 수업은 무엇일까. 완벽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미술을 통해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고 세상을 향해 자신만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싶었다. 더 나아가 미술관과 박물관을 맛집처럼 드나들고, 전시 감상 기록을 SNS에 솔하게 남길 수 있을 만큼 미술이 아이들의 삶에 윤택함을 더해주길 바랐다.

2. 배우고 실패하고, 배우고 시도하고

역설적이게도 나를 그 불안과 좌절의 늪에서 건져 올린 건, 내가 그토록 해매었던 ‘과정 중심 수업’의 본질이었다. 그날 이후, 수업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조금씩 바꾸어 갔다. 혼자 미술실에 갇혀 완벽한 지도안을 짜는 대신, 경북 미술교과 연구회에 참석하고 수업 나눔 축제와 신(新) 퇴계 수업 나눔에 달려가 동료 선생님들과 고민을 나누며 선배들의 지혜를 배우고자 노력했다. 또한 학생 주도형 학습(질문 탐구 학습)이나 평가 연수가 열리는 곳이면 괜히 기웃거렸다. 수업의 방향을 바꾸려면 결국 평가의 기준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늘 어렵고 조심스러운 업무였지만, 수업과 평가를 제대로 연결해 보고 싶다는 마음에 학교에서 평가계 업무를 자처하여 지침서들을 더 깊이 들여다보기도 했다.

배움의 공간은 온라인으로도 확대되었다. 전국의 미술 선생님들이 모인 온라인 모임에 가입해 다양한 수업 사례를 찾아보았다. 아이들의 마음을 끌어내는 발문, 순수한 표현의 즐거움이 담긴 현장 사진, 학습 과정에 대한 생생한 기록을 보며 내 수업의 부족한 조각들을 찾기 위해 애썼다. 그렇게 다른 이들의 기록을 나침반 삼아 내 교실의 풍경에 맞게 조금씩 다듬고 적용해 나갔다.

이러한 서툰 시도들이 쌓이면서 감사하게도 교실에는 아주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다. 첫해의 수업이 그저 평가

중심의 단발성 활동의 나열이었다면, 학기가 거듭될수록 수업은 점차 유기적인 흐름을 갖추게 되었다. 특히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맞추어 나만의 학년별 미술 교육과정의 틀을 고민하게 된 것은 큰 변화였다.

중학교 1학년 수업의 중심은 ‘개인’에 두었다. 아직 초등학생 티를 벗지 못한 아이들이 미술이라는 도구를 손쉽게 다룰 수 있도록 온전히 자기 자신을 탐색하고 표현하는 즐거움을 느끼게 하고 싶었다. 직접 만져보고 그려보면서 미적 감수성을 깨워 자기를 표현하는 단계다.

중학교 2학년이 되면 시선을 한 단계 넓혀 ‘나의 주변’으로 초점을 옮겼다. 한창 생각이 많아지는 시기의 아이들과 함께 우리 주변(인간관계, 지역 사회, 환경 등)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미술이라는 시각 언어로 표현하는 법을 나누었다. 단순히 예쁘게 그리는 것보다 미술로 세상과 소통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3학년이 되었을 때는 앞서 배운 내용을 조금 더 심화하여 표현하도록 이끌고자 계획했다. 미술로 세상과 소통함으로써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아이들이 저마다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다. 사실 아직 3학년 과정은 실제로 길게 운영해 보지 못해 머릿속 이론에 가깝지만, 교실 현장에서 부딪히고 수정해 가며 이 뼈대를 단단하게 채워나갈 예정이다.

이쑤시개로 쌓아 올린 듯한 나만의 어설픈 교육과정은 미술실의 풍경을 조금씩 바꾸어 놓았다. 가장 큰 변화는 아이들이 더 이상 ‘똑같이 그리는 것’에만 연연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이다. 물론 아이들은 여전히 사진처럼 정교하게 그려진 그림의 중요성을 알고 그것을 대단한 능력이라 여기지만, 적어도 자신의 서툰 그림 앞에서 쉽게 좌절하지는 않는다.

“선생님, 저 이번엔 좀 잘 그린 것 같아요.”

“작년보다 실력이 늘지 않았어요?”

교실 안에서 자신을 스스로 칭찬하는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림 실력은 좀 이래도 주제는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어요”라며 제법 당당하게 작품을 설명하는 아이도 생겼다. 자기 손으로 그려낸 결과물을 두려워하며 도구 뒤로 숨으려던 아이들이, 이제는 제법 자기 그림을 귀여워하고 만족할 줄 아는 자신감을 느끼게 된 것이다. 미술이라는 과목 자체를 흥미롭게 여기는 눈빛들이 미술실을 채우기 시작했다.

그 변화는 이론 수업으로도 번졌다. 예전에는 지루해하거나 정답이 아닐까 봐 우물쭈물하던 아이들의 입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한 것이다. 교과서 속 정답을 요구하는 대신 “너희의 생각을 말해보자”라며 꾸준히 발문을 던졌더니 마침내 반응이 돌아왔다. 비록 때로는 엉터리 같고, 논리라곤 찾아볼 수 없는 엉뚱한 대답일지라도 자기 생각을 스스로 표현하는 모습 그 자체가 내게는 너무나 소중한 순간이자 멋진 결과로 나아가는 귀한 과정이다.

3. 오글거림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교실을 꿈꾸며

4년 차 교사의 기록치고는 이 글이 다소 자기 노력에 심취한 허영심 가득한 글로 보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 글은 ‘내가 이만큼 노력했소’ 하는 교만함이 아니라,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하겠다는 나 스스로를 향한 약속이자 암시의 주문에 가깝다. 그 힘들다는 시험을 치르고 이 치열한 교단에 선 이상, 아이들을 대충 가르치다가 갈 수는 없지 않은가.

요즘 우리 사회는 매우 각박하다. 아이들은 조금만 감성적인 이야기를 해도 ‘오글거린다’라는 말로 마음을 내비쳐 보이기를 꺼려한다. 나는 내 미술 수업을 통해 아이들의 메마른 감성이 다시 촉촉해지기를 바란다. 오글거린다는 말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신의 섬세한 감각과 과정을 다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어른으로 자라나길 소망한다.

더 나아가 아이들이 미술실 안에서 자기 생각에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으며, 일상에서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발견해 나가는 수업을 꿈꾼다. 미술을 배운다는 것은 기술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읽는 나의 눈과 마음을 섬세하게 다듬어가는 과정임을 아이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다.

물론 앞으로의 교사 생활에서 나는 자주 흔들릴 것이고, 끊임없이 실패할 것이며, 때로는 아이들에게 상처를 받기도 할 것이다. 모두가 퇴근한 교무실에 오도카니 앉아 또 눈물을 뚝뚝 흘리며, 다시금 자존감이 일그러지는 날도 분명 올 것이다. 하지만 그 모든 시행착오 속에서도 내가 방향을 잃지 않을 이유는 분명하다. 아이들이 미술을 통해 세상의 희로애락을 느끼고, 삶을 더 다채로운 색으로 채워갈 수 있도록 돕는 길라잡이가 되고 싶기 때문이다.

할 수 있는 한 꾸준히 배우고, 연구하고, 또 부딪힐 것이다. 내년에도, 그다음 해에도 아이들의 찬란한 성장 과정을 함께하는 교사가 되기를 다짐하며 글을 마무리한다.



‘풍경화 그리기’ 수업 전경



중학교 1학년 ‘나의 감수성 도넛 만들기’ 수업 활동

흔들리며 피어난 꽃이 더 단단하듯: 어느 새내기 주무관의 성장기

김하선 의성교육지원청 / 주무관



“엄마! 나 합격했어!”

2022년 8월 29일, 합격자 조회를 한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선명하다. 중국어 교사를 꿈꾸던 나에게 당해 채용 인원 0명이라는 소식은 큰 좌절이었다. 하지만 꿈을 포기하는 대신 교육행정직이라는 새로운 길을 선택했고, 8개월 동안 치열하게 달려 끝내 합격이라는 순간을 맞이했다.

1. 익숙한 듯 낯선 시작

2023년 1월 첫 발령 후 인수인계를 받았을 때, 낯선 감정과 함께 묘한 익숙함이 느껴졌다. 2년 반 동안 대학원 행정실 조교로 근무하며 이미 행정업무를 접한 덕분인지 문서 처리, 민원 응대, 일정 관리 등 기본적인 행정 흐름은 어느 정도 익숙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교육지원청이라는 새로운 환경은 또 다른 성격의 행정이었다. 대학이라는 비교적 단일한 조직과 달리, 교육지원청은 단순히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넘어 여러 상황과 요구를 이해하고 전체를 조정하는 시각이 필요했다.

익숙함 위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새로운 출발의 첫걸음이었다. 이후 실제 업무를 맡게 되면서 교육지원청의 행정이 생각보다 더 다양한 역할과 상황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씩 느끼게 되었다.

2.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시험을 준비하던 시절의 나는 교육행정을 조금 더 거창하게 생각했던 것 같다. 교육 정책을 지원하고, 학교 현장을 뒷받침하며, 교육의 변화를 만드는 일을 상상했다. 그러나 첫 발령 후 맡게 된 업무는 예상과는 조금 달랐다. 처음 맡은 업무는 '청사관리'였다. 시설 점검부터 각종 행정 지원까지, 업무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고 모호했다. 하루에도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일들이 계속 생겼고, '이 것도 내 업무인가?' 싶은 순간도 많았다.

꿈꿨던 교육행정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크게 느껴져 '내가 바라던 공직 생활이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이른바 '현타'를 느낄 만큼 여러 생각이 겹쳐 있었다. 그 무렵 참석했던 한 연수에서 자기소개를 하며 맡은 업무를 이야기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나의 업무를 듣고 상대방이 보인 가벼운 반응 하나하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오래 남았다.

그 일을 계기로 업무의 중요성보다 '남들에게 보이는 것'에 스스로 흔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돌아보게 되었다.

3. 작은 업무가 만든 단단함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생각이 달라졌다. 누군가는 쉽게 지나치는 일들이 사실은 조직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데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점차 알게 되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업무라도 누군가는 해야 하고, 그 역할 덕분에 다른 업무들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배웠다.

업무의 크기나 이름에 스스로 의미를 두기보다, 맡은 자리에서 얼마나 책임감 있게 해내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때의 깨달음이 지금까지 이어져, 현재도 늘 배우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업무 중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면 신규 때처럼 긴장하고 두렵기도 하지만, 이 긴장감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담담하게 해결 방법을 찾아내며 상황을 받아들이고 풀어내는 힘을 배워가고 있다.

돌이켜보면 모든 순간이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 과정들이 지금의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된 것 같다. 이후 업무가 바뀌면 다시 처음부터 배우는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런 변화까지도 결국 또 다른 성장의 과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배우는 자세를 잃지 않고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꾸준히 성장하는 공직자가 되고 싶다.



지유야, 공교육이라는 단단한 품 안에서 우리는 매일 도전하고 성장하고 있어

-경북교육 4년간의 기록(23년~26년)-

손지영 윤곡초등학교 / 학부모



사랑하는 딸 지유야,

어느덧 싱그러운 초록이 가득한 4학년의 봄이 왔구나.

엄마는 요즘 부쩍 자란 네 모습을 보며, 네가 처음 책가방을 메고 학교 문을 들어서던 1학년의 그 봄을 소중하게 떠올려 보곤 해. 그해엄마는 혹시나 우리 지유가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막연한 불안감에 마음을 졸이기도 했단다. 하지만 엄마의 걱정이 무색할 만큼, 네가 학교에서 새로운 과목을 배울 때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배운 거 너무 재밌었어!”라며 눈을 반짝이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 국어, 영어, 수학은 물론이고 사회, 과학, 도덕, 체육, 음악까지 어느 한 과목 빼놓지 않고 전부 다 좋다고 말하는 너를 보며, 공교육의 울타리 안에서 배움의 즐거움을 알아가는 네가 얼마나 기특했는지 몰라. 그리고 4학년이 된 지금까지도 매일 아침 학교 가는 길이 행복하다고 말해 주어서 참 고마워.

4학년이 된 지금까지도 매일 아침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는 네 목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들려서 엄마는 매일 아침 듣는 하고 감사하단다.

‘사운드 오브 운곡’ 학교 합창단, 무대 위에서 배운 협력과 책임감

지난 4년간 우리 지유의 학교생활은 늘 빛나는 ‘도전’의 연속이었지. 1학년 때부터 시작한 경북 교육청 학생 예술 동아리 활동인 운곡초 합창단 ‘사운드 오브 운곡’ 활동은 지유에게 참 많은 것을 선물해 주었어. 학생어울림한마당, 동요대회, 학교 학예회까지 해마다 크고 작은 무대에 당당히 서며 지유는 친구들과 소통하고 배려하는 협력과 책임감을 몸소 배웠지.

혼자서는 낼 수 없는 아름다운 화음을 위해 서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던 그 시간들이 차곡차곡 쌓여, 작년에는 무려 그 높은 경쟁률을 뚫고 당당하게 학예회 MC 오디션에 합격해 멋지게 무대를 이끌어가기도 했잖아. 수많은 관객 앞, 환한 조명 아래에서 마이크를 잡고 환하게 웃는 너를 보았을 때, 엄마의 가슴은 벅찬 감동을 넘어 ‘우리 아이가 이렇게나 단단하게 자랐구나’ 하는 생각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단다.





“우리 학교 도서관은 천국이야”, ‘책 온(ON) 학교’가 넓혀준 세상

지유가 그 많은 사람 앞에서도 떨지 않고 조리 있게 제 생각을 표현할 수 있었던 건, 네가 가장 사랑하는 ‘독서’라는 비밀 친구 덕분일 거야. 경북교육청에서 진행하는 ‘책 온(ON) 학교’ 활동은 우리 지유의 일상을 온통 따스한 책의 온기로 채워주었지. 매일 아침 20분씩 정적을 깨우는 아침 독서는 물론이고,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마다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틈새 독서를 즐기는 너.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도서관 도장을 찍고 집에 돌아와 엄마 손을 꼭 잡으며 속삭이던 네 예쁜 목소리가 늘 기억에 남아.

“엄마, 우리 학교 도서관은 정말 천국 같아!”

그렇게 도서관이라는 천국에서 배경지식을 넓히고 생각을 키워가더니, 작년에는 경북교육청 ‘하하 챌린지’에서 ‘금장 인증서’까지 받으며 즐겁게 활동했을 때 네가 느꼈을 성취감은 앞으로의 삶에 큰 자양분이 되어줄 거라고 믿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학생 발명대회와 회장 선거의 추억

지유의 반짝이는 호기심과 끊임없는 도전 정신은 과학 시간에도 눈부시게 빛났어.

1학년 때부터 매년 도전했던 학생 과학 발명품 경진대회에서 늘 교내 상을 놓치지 않더니, 3학년 때는 시 예선 대회에 나가 장려상과 올해는 최우수상을 차례로 받아 안았지. 수상의 결과를 떠나서, 일상의 작은 불편함을 지나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세상을 더 편리하게 바꿀 수 있을까?’ 고민하고 연구하며 행복해하던 네 과정 중심의 성장이 엄마는 무엇보다 자랑스럽다. 물론 모든 순간에 달콤한 성공만 있었던 건 아니었지. 올해 4학년이 되어 학급 반장 선거에 나갔다가 아쉽게 떨어졌을 때, “엄마, 나 2학기 때 또 도전할 거야!”하고 씩씩하게 웃어 보이던 너의 강인한 모습을 보며, 엄마는 큰 깨달음을 얻었어. ‘우리 지유는 실패 속에서도 결과에 만족할 줄 알고 다음을 준비할 줄 아는, 엄마보다 더 어른스러운 아이가 되었구나’ 싶었지. 넘어져도 흠을 털고 다시 일어서는 그 단단한 마음이야말로 지유에게 가장 큰 장점이란단.



도전하는 만큼 성장한 우리 딸 “도전해야 가능성이 열리니까!”

네 이런 씩씩함이 어디서 나오나 했더니, 문득 작년 운곡초 ‘질문 축제’ 때 네가 남겼던 글이 떠올라 엄마 미소가 지어지네.

“2026년에는 또 다른 새로운 도전을 할 거야?”라는 질문에 너는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적었었지.

“응, 당연하지! 도전을 해야 가능성이 열리니까. 지금도 도전 중이고, 내년에도 난 다시 새롭고 많은 도전을 할 거야. 생각만 해도 벌써 기대돼. 반장 선거, 합창단 오디션, 연예인과의 무대 공연, 학생예술평론대회, 영재 지원, 하하 챌린지 독서, 학예회 MC 오디션, 태권도 승품 심사, 무서운 놀이기구 타기, 황금시장 축제 경연대회…… 올 한 해 많은 도전들 덕분에 행복한 성공들과 조금은 씁쓸했던 실패를 겪으며 멋지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

라며 이렇게 수많은 도전의 목록을 스스로 적어 내려가며 눈을 반짝이던 너를 보며 엄마는 큰 감동을 받았단다. 성공의 달콤함뿐만 아니라 ‘씁쓸했던 실패’마저도 너를 멋지게 만들어 준 하나의 과정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아홉 살 아이의 마음이 어찌면 이렇게 깊고 넓을까 싶어서 말이야.

질문 노트와 일기장에 차곡차곡 쌓인 자유의 역사

지난해의 아름다운 다짐처럼 자유는 올해 경북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질문이 넘치는 교실’ 활동에 참여하며 질문 노트를 정성껏 채워가고 있지.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질문으로 바꾸어가는 네 모습은 사실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닐 거야.

매년 방학 때마다 학교 과제로 주어지던 일기 쓰기를 귀찮아하지 않고, 두꺼운 노트 한 권을 콕콕 채워가며 열심히 썼던 네 성실함이 밑거름이 되었겠지. 가끔 거실에 앉아 1학년 때부터 뽀뽀뽀하게 써 내려간 일기장들을 소중하게 들춰보며 뿌듯해하는 너를 볼 때면, 네가 스스로 네 삶의 역사를 기록해 나가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오른단다.

‘건강한 생활 365’부터 ‘교육감 인증제’까지, 네 삶이라는 책의 주인공

올해는 우리 학교가 ‘건강한 생활 365 연구학교’로 지정되면서 또 하나의 멋진 추억이 생겼지? 실천 노래 만들기 공모에서 당당하게 4학년 대표로 선정되어 기쁘게 상품을 안고 오던 날, 네 행복한 웃음이 엄마 마음속에도 환하게 기억되어 있어.

지금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꿈 성취 학교장 인증제’를 넘어 ‘교육감 인증제’까지 되기 위해 또 다시 도전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 지유.

경북 공교육이 마련해 준 다채로운 무대 위에서 네가 마음껏 날개를 펼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엄마에게는 커다란 축복이란다.

경북 공교육 안에서 딸과 엄마가 함께 큼니다

지난 4년의 시간 동안, 경북교육청의 든든한 지원과 공교육 시스템 안에서 우리 지유는 예술로 마음을 나누고, 독서로 세상을 넓히며, 다채로운 도전을 통해 매일매일 눈부시게 성장해 왔어. 아이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며 자란다고 하지만, 엄마는 오히려 매일 한 뼘씩 자라는 지유의 앞모습을 보며 더 좋은 부모가 되고 싶다는 꿈을 꾸고, 함께 자랄 수 있었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반짝이는 나의 사랑스러운 딸 지유야. 앞으로 남은 초등학교 생활도 지금처럼 행복하고 당차게 걸어가 가렴. 네가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엄마, 아빠가 늘 가장 큰 박수를 보내며 함께 걸을게.

네 삶이라는 아름다운 책에 엄마가 가장 첫 번째 독자이자 영원한 팬이 될 수 있어서 매일 기적 같아. 지유의 모든 페이지를 온 마음으로 응원할게. 사랑한다 우리 딸.

2026년 5월

네의 모든 도전을 사랑하는 엄마가

울릉도에서 보냈던 학창생활을 마무리하는 글

김효진 원광대학교 한의예과 1학년 / 울릉고 졸업생



안녕하세요. 저는 울릉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26학번 신입생이 된 김효진입니다. 졸업 후 오랜만에 연락한 고등학교 후배가 “울릉도에선 아직도 언니 이야기를 하고 있어!”라며 잔뜩 신이 나서 말해주더군요. ‘결과 나온 게 언제인데 지금까지 얘기가 나오나?’ 싶었는데, 저와 제 친구들도 2011년에 울릉고등학교에서 서울대를 갔다는 이야기를 작년까지 떠들었던 걸 생각하면, 딱딱딱한 제 이야기는 유통기한이 한참 남았을 겁니다.

고등학교 졸업식 날 재학생 대표의 축사에 졸업생 대표로서 답사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더라도 안개가 걷히는 날은 오게 됩니다. 그런 날 되돌아보았을 때 후회 없을 학창 생활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였습니다. 이걸 고등학생이던 제가 듣고 싶은 말이기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말에 휘둘리기도 했지만, 제가 보아도 스스로 잘하고 있다는 확신이 서지 않아서 힘들었던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대학에 와서 울릉도에서 왔다고 하면, 많이들 고등학교를 울릉도에서 나온 거냐고 다시 물어보곤 합니다.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저 역시 고등학교까지 울릉도에서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중학교 3학년, 누구는 과학고에, 누구는 외고에, 몇몇은 사립고에, 다른 몇은 평준화 일반고, 특성화고, 등등 저마다 진학할 고등학교를 고민합니다. 이때쯤 반에서 가장 많이 들려왔던 말은 “울릉고등학교에는 절대로 안 가지!”였습니다. 울릉고등학교에 지원한 학생들도 저 말에 굳이 반박하지 않았습니

다. 초등학교 때 공부하기 싫다고 징징거리는 제게 아버지께서 “공부 안 하면 고등학교까지 울릉도에서 나올 줄 알아!”라고 하셨습니다. 으악! 하면서 책상으로 뛰어갔던 기억이 나요. 뭣도 모르는 초등학생도 울릉고등학교를 가면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20살이 될 때까지 울릉도에 갇혀요! 옛날 울릉도 학생들이 공부를 그렇게 잘 하기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공부가 아니면 울릉도를 떠날 수 없어서요. 한 번씩 저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깔깔 웃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엄청나게 공감했습니다. 얼마나 싫으면 그렇게 열심히 했을까? 학생들이 울릉고등학교에 진학하기를 꺼리는 이유 중 가장 큰 건 답답한 섬을 떠나고 싶은 마음 때문일 겁니다.

다른 한 편으론, 울릉도에 남는다는 게 ‘실패’했다는 꼬리표를 다는 것과 같아서일지도 모릅니다.

“울릉고도 예전 농·어촌학교들이 그렇듯 10여 년 전만 해도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육지로 전학 가고 성적이 부진하거나 대학진학을 포기한 친구들만 고향에 남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울릉고 학생들에 대한 시선이 그리 곱지만은 않았다.
울릉고에 입학하면 대학과는 무관한 학생으로 낙인찍혔고 사고뭉치나 말썽꾸러기로 인식됐다.”

- 2021. 06. 28 영남일보 정용태 기자-

울릉고등학교와 그 학생들을 너무나 잘 설명한 기사인 것 같아 인용해 보았습니다. 위의 기사에서는 ‘10여 년 전만 해도’라고 하지만, 실은 2026년인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창 생활 내내 울릉도는 소위 말하는 ‘사회적 성공’

을 이루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는 마인드를 다들 지니고 있었고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울릉도가 아닌 다른 놓여준 학교의 학생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나의 출신지가 너무나 낙후된 곳이고, 이런 곳이니까, 여기에서는 잘될 수 없고, 그러니까 뒤쳐지는 건 당연하지 않은가. 나도 모르게 지니는 무력감과 우울함! 끔찍할 정도로 싫은 한편, 여전히 전 저 말에 시원하게 반박하지 못합니다. 울릉도에서 평생 살아오는 동안 늘 뒤따라오는 콤플렉스였으며, 한의대에 합격하고도 떨쳐내지 못할 정도로 제 생각보다 질겼습니다.

저는 울릉도가 좋고, 그래서 제가 자라온 곳이 울릉도라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울릉도라서, 울릉도이기 때문에 저는 물론 제 친구들, 그리고 다른 어른들까지 자기도 모르게 무력감을 갖게 되는 게 싫습니다. 이렇게 깊숙히 기저에 깔린 콤플렉스는 세대를 거듭하여 우리들의 발목을 잡아왔을 겁니다. 현실적인 한계도 물론 있었겠지만, 벽에 부딪히길 반복하다 지쳐, '원래 넘을 수 없는 벽'이라 이름 붙여 버렸겠지요.

5월 15일,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선생님들께 연락했습니다. 대부분의 선생님께서 이미 제 소식을 알고 계셨어요. 다들 앞으로 애들이 전보다 더 울릉고등학교에 가겠다며 제가 기여한 바가 크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좋은 사례로 후배들에게 희망이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점은 매우 기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마음속에 남은 콤플렉스는 마냥 기뻐하기만 할 수 없게 만듭니다. 난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인데, 괜히 내 사례로 인해서 울릉도에 남았다가 크게 후회하게 되는 후배가 생기면 어떡하나 싫어서 마음이 무거워져요.

그럼에도 제 영향을 받은 후배가 울릉고등학교를 빛내고, 다시 그 영향이 또 다른 후배들에게 이어지고 이어져서, 언젠가는 제 세대까지 이어졌던 콤플렉스가 없는 울릉고등학교가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도 안되는 건 잘 알고 있지?”, “네가 여기서 잘 한다고 해서 진짜 잘하는 것 같아?”, “너희가 착각하고 있는데, 울릉고등학교는 원래 대학을 잘 보내는 학교가 아니야.” 그동안 들었던 말 중 특히 기억에 남는 것들입니다. 특히 여기서 잘 한다고 잘하는 것 같으냐는 말은 살면서 몇 번은 들은 것 같아요. 저 세 말 모두 저도 잘 알고 있다는 대답으로 넘어갔었습니다.

분명 잘 알고 있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도 컸습니다. 그만큼이나 저를 응원해 주는 사람들도 많았으니까요. 엄청나게 확신하시면서 “할 수 있으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고 해주신 선생님도 계셨고, 제 어머니보다 더 나서서 절 돌봐주셨던 은사님과 같은 권사님도 계셨어요. 당장 옆에는 날 가장 많이 지켜보면서 격려해주는 든든한 친구들도 많았고, 응원해주는 고마운 후배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절 가장 자랑으로 삼으시고 늘 큰 기대를 보내주시는 아버지에게 기쁨을 선물해 드리고 싶어서 끝까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욕심인 것 같아요.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간에요. 저는 좋은 방향의 욕심을 가지게 되어서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울릉도에선 제가 한의대에 합격했다는 소문만 퍼졌기 때문에 다들 제가 즐겁게 대학 생활을 하고 있으리라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즐거운 것과는 별개로 매일 매일 잘 살고 있다는 걸 느낄수록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누구보다

먼저 전해주고 싶었던 아버지께서 제 대학 면접 다음 날 새벽, 과로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기 때문이에요. 기차에서 소식을 듣고 급하게 당일 밤배를 타기 위해 포항 영일만항으로 향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잠들 때까지 울고 눈을 뜨자마자 울었습니다. 빈소에 도착해서도 손님이 없으면 눈물이 나왔습니다. 아직도 혼자 있을 때면 아버지가 불쌍하고 화가 나서 많이 울게 됩니다.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일이 너무 힘들어서, 나중엔 편하게 여행을 다니면서 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여행만이 아니더라도 해드리고 싶었던 게 정말 많았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상태에서 제가 아버지께 해드린 것, 해드릴 수 있었던 것에 한계가 있었어요. 1년이라도, 시간이 더 있었으면 어땠을까? 면접이 끝나는 대로 울릉도에 돌아가면 아버지와 같이 밥을 먹기로 했었습니다. 단 하루라도 시간이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많이 울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장례식 첫날 밤에 혼자서 빈소를 지켰습니다. 손님들이 돌아가고 조용할 때 혼자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하필 지금 돌아가셔야 했는지 억울함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제 힘으로 할 수 있었던 것들만을 따져보았을 때 전 아버지 앞에서 자식으로서 부끄럼 없이 19년을 보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만큼 당시에 위로가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에게 가장 자랑스러운 자식이었고, 가장 사랑받았던 만큼 저도 아버지께 사랑을 많이 표현했고 아버지도 그걸 모르시지 않았으니까요.

고등학교를 떠나 시작한 대학 생활은 정말 즐겁습니다. 그건 그간 학교에서, 가정에서 후회될 일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아직 학교에 남아있는 제 후배와, 과거의 저에게 꼭 후회없이 최선을 다하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소중한 가족과 친구,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랑함과 고마운 마음을 거리낌 없이 전해주세요.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스스로를 미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미래의 내가 단단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말이에요.



2026년 상반기호
Vol 13

발행일	2026. 6.
발간등록번호	2026-24
발행처	경상북도교육청
발행인	경상북도교육감
총괄	기획예산관 장중찬
편집주간	기획예산관 장학관 정기효
편집담당	기획예산관 주무관 박지현
주소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511
연락처	TEL. 054-805-3116 FAX. 054-805-3149
홈페이지	http://www.gbe.kr
디자인인쇄	디자인숨

※ 본지에 수록된 외부 필자의 원고는 경상북도교육청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